
한일관계사학회

제209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오후 2~6시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B2 세미나실

차 례

사회 : 이형주(국민대)

제1발표	
1555년 을묘왜변 제주대첩에 관하여	발표 : 윤성익(경희대) 토론 : 조혜란(방송대)
제2발표	
「내선융화구락부」에서 골프구락부로 － 「고급사교구락부」의 문화접변	발표 : 김동명(국민대) 토론 : 현명철(서울대)
제3발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의 쟁점	발표 : 황선익(국민대) 토론 : 김상규(군사편찬연구소)

제1발표

1555년 을묘왜변 제주대첩에 관하여

발표 : 윤성익(경희대학교)

토론 : 조혜란(방송대학교)

【제1주제】

<2023년 11월 11일 한일관계사학회 월례발표회>

1555년 을묘왜변 제주대첩에 관하여

(요약·발표문)

윤성익(경희대)

1. 서론
2. 관련 사료 및 내용상의 모순
3. 제주대첩에서의 의문과 추론
4. 후기왜구로서 을묘왜변의 특수성
5. 결론

1. 서론

·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개요

-1555년(명종 10) 음력 5월, 70여 척의 배를 타고 온 왜구들이 전라도에 상륙해 달랑성을 함락시키고 영암·강진·장흥·고흥 일대를 약탈한 을묘왜변(乙卯倭變) 혹은 달랑왜변(達梁倭變)이 발생. 음력 6월 21일, 왜선 40여 척이 보길도(甫吉島)에서 제주 앞바다로 건너와 1리 정도의 거리에서 닻을 내리고 정박한 뒤(㉠-㉡) 음력 6월 27일 1,000여 명이 상륙해 제주성을 공격. 제주목사 김수문(金秀文)은 70명의 효용군을 이끌고 이를 격퇴.(㉢-㉣) 명종은 제주도에서의 승전을 「대첩(大捷)」이라고 표현하며 크게 기뻐함(㉤-㉥)

· 최근 제주도에서의 역사재발견 작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에서 연구 작업 및 관련 서적 발간
『치마돌격대-숨겨진 역사 유랑』(2021); 『학술세미나-을묘왜변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사문화자원화』(2022), 『을묘왜변과 제주대첩』(2022), 『제주 역사의 재발견-을묘왜변 제주대첩』(2023)
-제주MBC “숨겨진 역사 을묘왜변 제주대첩”(2022년 10월 방영)
-2023년 6월 15일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막작 「치마돌격대」

·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과제 및 보완요소

-극히 적은 직접 사료와 사료 사이의 대립적 내용 → 사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접근 방법 및 시각의 문제 → 관심 대상은 침략에 대한 승전사·인물사 ⇒ 사건의 본질(후기왜구)이 소홀해질 우려
- 당시 ‘후기왜구’와 조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을묘왜변(달랑왜변·제주왜변)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사료 및 내용상의 모순

1) 제주 을묘왜변 관련 사료

2) 전투 상황의 모순 : 김수문 장계에의 의문

① 전투 기간 : 하루 vs. 3일

· 김수문 장계는 27일 상륙, 그날 승리(㉠-㉣·㉠-㉣). 그 외의 후대 기록에는 3일

② 승전의 양상 : 적극공세 vs. 수성(守城) 후 추격(追擊)

- 장계는 왜구가 진을 치자 적극적으로 공격해 승전.
- 제주도 지방지 등 후대의 사료는 ‘적이 (③:스스로) 물러날 때를 기다렸다가 추격’

③ “성을 포위” : 사료 ② · ①-㉔ → ‘3일간의 포위’를 입증? ⇒ ‘장계’는 거짓인가?

④ 모호한 제주대첩의 ‘전과(戰果)’

- 장계 : “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斬獲甚衆)”

→ 그 외 김수문의 왜구 토벌 공적이 매우 구체적인 것과는 대조적 : <표2>

⑤ 김수문은 사실을 ‘개변(改變)’했는가?

- 21일 제주 앞바다 정박 → (7일 후) 28일 조정에서 논의
- 7월 6일 조정에 승전 장계 → (8일전) 27일 승전? → 25일 상륙
→ (6일전) 29일 승전? → 27일 상륙
- 장계의 전투 묘사는 추격전 때의 모습?
- 왜구 규모는?

3. 제주대첩에서의 의문과 추론

1) 달랑왜변과 제주왜변의 왜구는 동일 집단이었는가?

① 달랑왜변 이후 같은 왜구가 제주도에 출현 · 상륙

- 사료 ①-㉔ : “본토로 돌아간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 또 제주에 나타났다” · “필시 강진에서 도적질하던 자들이 중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
- 구체적인 근거는?

② 달랑왜변시 왜구의 동선 : <지도1>

- 5/11 가리포 → 5/11 상륙 · 달랑성 포위 → 5/13 달랑성 함락 ⇒ 5/23 영암 공격 → 5/26 배를 타고 도망 → 5/27 가리포 → 5/28 가리포 · 회령포 함락 · 녹도 포위 → 5/28 녹도에서 포위를 풀고 퇴각(왜선 28척) → 6/3 금당도에서 패주(잔존 왜선 27척, 사료㉔)
- 6/21 보길도(40여 척) → 6/25? 27? 제주 상륙
- ㉔ : 녹도에서 패배 후 백량(白梁:해남현 白島) · 보길 등에 정박. 50척.

③ 공백의 20여 일 간 왜구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 27~40여 척의 대집단 → 남해안에서 은거가 가능?
- 식수의 보급이 필수 : 『주해도편』 「倭船」: 冬寒稍可耐久, 若五六月, 蓄之桶中二三日即壞, 虽甚清冽不能过数日也.
- 6/21까지 어디에 있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 “왜 안 돌아갔을까?”

→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편이 타당

④ 1555년은 가정왜구의 극성기

- 당시 중국대륙에서는 많은 왜구집단이 활동 : <표4>
- 기존 집단에 새로운 왜구(新倭)가 종종 합류 : 명 『세종실록』 가정 34년 4월 7일, 5월 1일, 5월 12일, 6월 12일 조
- ⇒ 당시 동아시아 해상에는 많은 선박(왜구)들이 왕래
- ← 예) 5/17 나로도의 왜선 2척 : 달랑왜변의 왜구와는 별개

⇒ 6/3에 패주한 왜선 27척과 6/11 보길도·제주도의 왜선 40여 척은 별도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

2) 제주에 침입한 왜구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① 제주대첩시 왜구의 행동

- 21일부터 25일 혹은 27일까지 바다에 정박
- 제주성 포위(대치) 3일 뒤에 (스스로) 물러남
- 침공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이 무렵의 왜구사건들을 통해 추정

② 제주도(조선)의 왜구사건(및 황당선) 특징 1 : “중국에서 약탈(장사) 뒤 도래”

- 달랑왜변 : 중국에서 도적질하여 이득을 취한 다음 우리 변방에 침범해 온 것(10년 5월 18일)
-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항해는 단오(음력 5월 5일)부터 중추(음력 8월 15일)까지가 유리
- <표2> · <표3> : 왜구의 도래 시기는 음력 5월~8월. 화물을 싣고 항행.
- 6/11 보길도에 (갑자기) 출현 : 서남쪽에서 항행해왔을 것

③ 제주도의 왜구사건 특징 2 : 풍랑으로 인한 표류 등 비정상적 항해의 결과

- 표류 : <표2> 3·4, <표3> 3·5·참고
- 왜구의 상륙 이유는 식량·식수를 구하기 위해 : <표3> 3·4
- 그 외 지역의 왜구사건 : 표류 뒤 식수(식량)를 구하려고 상륙하는 경우가 다수
- 표류자에 대한 조선의 태도 : “표류하는 왜인을 한 번도 돌려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방 장수는 그들을 죽여 상 받기를 구함”(8년 7월 24일)
- 표류자가 식량·식수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약탈

④ 제주도 왜구선단에 대한 추정

- 21~25(27)의 정박 : 정상 항해가 불가능 → 항해 계속을 위한 식량·식수의 보충이 필요
- 3일 뒤 (스스로) 퇴각 : 주변 지역의 약탈로 필요 물품을 확보
- ← “제주는 을묘년에 왜변을 겪고 난 이후 옛날의 번성함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20년 9월 3일)

4. 후기왜구로서 을묘왜변의 특수성

- 특수한 을묘왜변
- 가정왜구의 시기, 조선에 대규모의 집단이 육지에 상륙해 각지를 공격하고 약탈했던 유일한 사건

- 의문 : 왜 다시 안했을까? ⇨ 왜 했을까? 누가 했을까?

1) 누가했는가?

① 을미왜변은 '후기왜구'에 의한 것 : 중국인+일본인의 집단

② 고토(五島)를 근거지로 했던 왕직(王直) 집단이 주도

· 유력 증거 : 사료 ㉔ - 고토와 사주(四州)의 행위

· 왕직은 부정. 사쓰마(薩摩) 왜구(徐海)에 의한 것 : 사료 ㉕ ← 강한 부정은 곧 긍정?

· 오도태수(五島太守) 내지 당진태수(唐津太守) 원승(源勝) : 사료 ㉖ 고토에서 출발했지만 고토는 무관. 사주의 행위 ← 강한 부정은 곧 긍정?

③ 사료 ㉔의 신빙성 문제

· 정보의 출처 : “적간관(赤間關)·살마주(薩摩州) 등지의 사람들”

← 왕직과 사쓰마는 라이벌 · 적대관계

· 당시(1556년) 왕직이 대대적인 침구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은 없음

→ 첫 번째 정보는 신빙성이 없음 ← 두 번째 정보는?

④ 사주(四州)는 왜 끌어들였을까? :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지역 · 세력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인가?

⇒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는) 고토의 왕직 집단이 관여(왜인을 끌어들여 약탈)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

2) 왜 했을까? 왜 두 번은 없었을까?

① 후기왜구의 약탈 대상 : 고가품 · 금수품(禁輸品)

② 달랑왜변의 주 약탈 대상은 군량(軍糧)?

· 군량 · 병장기의 약탈 : 『명종실록』 명종 10년 5월 26일(기미), 5월 28일(신유), 5월 30일(계해), 6월 8일(신미), 8월 19일(신사).

· 조선조정에 군량 30석을 요구(10년 5월 19일) ← 핵심 목표였는가? 그럼 혹시...?

③ 달랑왜변은 계획된 약탈!?

·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왜구 중에는 패배 후 도망쳤던 경우도 있었음

→ 달랑왜변은 조선에서 만회하기 위해 계획된 항로 · 약탈?

· 왜 다시 안 했을까? 이유는?

-약탈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서 ← 돌발상황(표류)으로 발생하는 약탈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

④ '하지 말라'는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나?

· 중국인 왜구수령과 이들이 근거지를 둔 해당 지역의 유력자는 상호협력 관계

· 을묘왜변 후 왜구금압을 빌미로 한 통교권의 요구

-당진태수 원승과 유황도(硫黃島) 태수 칙충(則忠)

· 조선과 일본은 공식 무역이 가능하던 때 : 사료⑥ → 구태여 조선에서 약탈하지 않고도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었음

5. 결론

· 1556년(명종 11) 4월, 왜인 안국(安國)이 요시지(要時知)를 보내 7~8세의 어린아이를 쇠환

-중국어를 조금 이해하고, 왜어를 능숙히 구사. 조선어는 모름

-후기왜구(중국인과 일본인의 혼합 집단)가 삶의 배경

· 달랑왜변시 왜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사료는 없음

-단편적인 단서를 근거로 중국에서의 왜구상황을 통해 추측할 뿐

→ 연구의 한계성

<사료 및 관련 도표>

1. 을묘왜변 관련 문헌 사료

① 『명종실록』

② 1555년(명종 10) 6월 28일

제주목사 김수문(金秀文)이 급히 장계를 올리기를, “이달 21일에 왜선 40여 척이 보길도(甫吉島)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1리가량의 거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삼공 및 비변사 당상을 명소(命召)하여 빈청에 모여 의논하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전라도에서 날뛰던 왜적들이 근래에는 나타나지 않아 이미 본토로 돌아간 것으로 여겼었는데 지금 또 제주에 나타났다고 한다. 만일 육지로 상륙하게 된다면 구원할 군사 및 활 잘 쏘는 사람을 많이 뽑아서 들여보내야 할 것이다. 만일 주사(舟師)로 협공(挾攻)하기로 한다면 미리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

심연원 등이 회계하기를,

“왜적들이 보길도에서 들어갔다면 필시 강진(康津)에서 도적질하던 자들이 중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신들이 듣건대, 순찰사가 지금 바야흐로 구원할 군사를 뽑아 보낸다고 했습니다. 만일 구원할 군사를 들여 보내려면 별로 탄 계책이 없고 마땅히 주사를 들여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신들이 비변사로 물러가 다시 의논하여 조치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③ 1555년(명종 10) 7월 6일.

제주목사 김수문이 장계를 올렸다. “6월 27일, 무려 1천여 인의 왜적이 물으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신이 날랜 군사 70인을 뽑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돌격하여 30보(步)의 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화살에 맞은 왜인이 매우 많았는데도 퇴병(退兵)하지 않으므로 정로위(定虜衛) 김직손(金直孫), 갑사(甲士) 김성조(金成祖)·이희준(李希俊), 보인(保人) 문시봉(文時鳳) 등 4인이 말을 달려 돌격하자 적군은 드디어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홍모두구(紅毛頭具)<투구이다.>를 쓴 한 왜장(倭將)이 자신의 활 솜씨만 믿고 홀로 물러가지 않으므로 정병(正兵) 김몽근(金夢根)이 그의 등을 쏘아 명중시키자 곧 쓰러졌습니다. 이에 아군이 승세를 타고 추격하였으므로 참획(斬獲)이 매우 많았습니다.”

④ 1555년(명종 10) 7월 7일.

제주목사 김수문에게 교서를 내렸다. “...지금 경의 치계(馳啓) 내용을 보고 지난달 27일의 승전(勝戰)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니 나의 근심이 크게 감해졌다. 평소 경의 충의(忠義)와 목숨을 나라에 바쳐 복재를 쥐고 죽으려는 정신이 아니었다면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공격하여 이와 같은 큰 승첩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能以寡擊衆, 致此大捷乎?)

㉔ 명종 18년(1563) 6월 11일(정사)

김수문(金秀文) 【사람됨이 눈은 번갯불처럼 빛나고 담력이 있어서 을묘년에 제주 목사가 되어 왜구가 성을 포위하자 적은 군졸로 많은 적을 방어하여 마침내 큰 공을 세운지라, 이로써 발탁되어 세 번이나 평안 병사(平安兵使)가 되어 심히 사졸의 환심을 얻었다.】(乙卯年爲濟州牧使, 倭寇圍城, 以寡禦衆, 卒有大功)

② 황우헌(黃祐獻), 「운주당(運籌堂) 기문(記文)」(1568년 봄)

1555년(명종 10) 여름에 해구(海寇)가 침범하여 이리저리 날뛰며 성을 포위하고는 높은 능선(高陵)에 웅크리고서 성안을 내려다보며 접근을 하는데 화살과 돌이 뒤섞여 내려오니, 군진의 허실과 사졸의 강약은 등불을 켜고 숫자를 헤아리듯 점칠 수 있었다.

③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1601년)

목사 김수문. 을묘(乙卯, 1555)에 왜구가 강진(康津)에서 쫓아 와서 침범하였으며, 포위된 지 3일간 굳게 지켰다. 적들이 스스로 물러날 때를 기다려 곧 출격하여 승리를 거두니, 교서를 내려 포상하였다.(被圍三日堅守, 以待竣賊自退, 卽出擊獲捷, 賜敕書褒獎)

④ 이원진, 『탐라지(耽羅志)』(1653년), ‘명환(名宦)’

김수문. 제주목사가 되어 왜적이 성을 포위한 지 3일 만에 물러가자, 수문이 날랜 정에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적을 베거나 사로잡았으며, 또 왜선 9척을 포획하였다.(倭賊圍城三日乃退, 秀文率輕銳追擊斬獲. 又捕倭船九艘.)

⑤ 『대동야승(大東野乘)』 중 조경남(趙慶男, 1570~1641), 『역대요람(歷代要覽)』(?) ‘가정 34년’

목사 김수문이 고군(孤軍)으로 힘껏 막아 그들이 퇴각(退却)하기를 기다려 추격해 크게 부수었다.

<표 1>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사료

연번	사료명	기록 시기 (음력)	간략 내용	비고
① ㉔	명종실록	1555(명종 10). 06. 28	왜선 40여 척(6월 21일), 제주 앞바다 1리 정박	
① ㉔	명종실록	1555(명종 10). 07. 06	상륙(6월 27일), 왜적 1,000여 명, 효용군 70명, 4명의 치마돌격, 홍모투구의 적장 사살	김수문의 장계
① ㉔	명종실록	1555(명종 10). 07. 07	승전 보고 접수, 대첩	
②	운주당기문(황우헌)	1568(선조 1) 봄	제주성 포위, 왜군 진중(높은 능선)	출전(이원진 『탐라지』)
③	남사록(김상헌)	1601(선조 34). 09. 22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관풍안 명환(김수문)
④	탐라지(이원진)	1653(효종 4)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왜선 9척 포획	명환(김수문)
⑤	역대요람(조경남)	17세기 중반 ?	후퇴 왜구, 추격해 대파(大破)	『대동야승』 수록
⑥	남한박물(이형상)	1704(숙종 30)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왜선 9척 포획	지명환(김수문)
⑦	연려실기술(이공익)	18세기 후반?	후퇴 왜구, 추격해 대파(大破)	인명 오기(이수문)
⑧	증보탐라지(윤사동)	1765(영조 41)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왜선 9척 포획	명환(김수문) · 고금사적

2. 그 외 관련 사표

㉠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6월 12일(을해).

녹도(鹿島)에서 포위를 푼 뒤에 왜선 28척이 금당도(金堂島)로 물러가 정박했는데, 6월 3일 남치근이 병사·수사와 함께 전함 60여 척을 가지고 셋으로 나누어 60여 리까지 추격하자, 왜선 26척이 화살에 맞아 기세가 궁해져 먼저 패주하고 2척은 그 뒤를 막아주며 대항했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난사(亂射)하자 왜적들이 거의 모두 화살에 맞아서 한 배에 합쳐 타고 1척은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날이 저물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8월 15일(정축)

녹도(鹿島)의 치보에 의해 적선이 본보(本堡)의 건너편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남치근과 조안국에게 달려가 지원하게 하였으며, 신도 보성(寶成)으로 가서 지원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적선이 나뉘어 우도(右道)로 향한다는 소문이 들어왔으므로 그대로 나주에 머문 채 중간에 위치하여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석에게는 그대로 영암에 머물러서 우도를 방비하게 했습니다. 적이 녹도에서 패배한 뒤에 또 적선이 백량(白梁)·보길(甫吉) 등에 많이 정박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병선(兵船)을 모아 최호(崔豪)로 하여금 진격하게 하고 조안국으로 하여금 이어서 지원하게 했으나 적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적선의 수는 대개 50척에 불과했습니다.

㉢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12월 7일(정유)

근년에 우리나라의 도적이 명나라에 가서 죄를 저질러, 여러 사람을 죽이고는 진귀한 물건을 탈취하였는데, 그 적선에 몇 사람이 타고 있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60여 주(州) 가운데 사주(四州)가 있는데 이 사주의 적당(賊黨)은 우리나라(我邦)에도 왕래하는 장삿배로 죄를 저지르는 일이 예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임금(我大王)도 그들을 막기 어려우니 진실로 방외(方外)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금년 봄에 명나라로 가려는 적선 1백 척이 서해(西海)의 오도(五島)에 도착해서는 포구와 나루마다 널려 있으면서 강약(強弱)을 엿보아 죄를 저질렀는데 그 밖의 적선이 도합 1천여 척이나 됩니다... 그 중에 사주의 적 70여 선이 조선으로 나가려고 하므로, 오도태수(五島太守)가 우리 임금에게 아뢰었더니 우리 임금이 크게 노하여... 군사들이 명을 받들고 봄부터 돌아오는 배를 기다렸더니 지난 7월 하순에 귀국(歸國)하던 배가 큰 바람의 환난(患難)을 만나 더러는 넓은 바다 속에 침몰되고 더러는 여러 섬으로 표류하여 물과 식량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신이 지키고 있는 당진(唐津)에도 1척이 표류해 왔는데 거기에는 7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30여 명은 목을 베고 30여명은 바다에 빠뜨려 죽였으며 배는 태워 버렸는데, 신의 용감한 군사 10여 명이 전사하였으니 몹시 애석합니다... 신이 지키는 당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평호도(平戶島)에 1척, 대도(大島)에 1척, 대마도(對馬島)에 1척 등 도합 1백여 명의 목을 베고 그 나머지는 바닷속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왕이 크게 충성스럽게 여겨 벼슬을 내리고 녹(祿)을 받게 하였습니다. 신이 죽인 자 중에 병부(兵符)를 목에 건 자가 있었는데, 이 부신이 무슨 맹서에 쓰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틀림없이 귀국에서 쓰는 데가 있는 것인 듯합니다... 조선에서 전사한 자들을 따르는 무리와 친족이 사주의 일당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건너가서 지난날의 치욕을 씻겠다고 하므로 우리 왕은 크게 노하여 서해로(西海路)의 포변에 대해서도 엄히 방어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군사들의 노고를 언급하여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자(呼子)에 사는 성만(盛滿)을 이웃에 사는 정의로써 당진에 달려가게 하여 귀국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군사를 재촉하여 한 번 싸워 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편에 병부만을 보내고 그 밖의 귀국의 활과 화살 및 토산물은 비록 많다 하더라도 모두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다... 가을에 명나라에 가려는 적선이 많았는데, 내년 봄에는 또 귀국에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곽을 지켜 태평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명종실록』 18권, 명종 11년 4월 1일(기축)

- 어느 지역 왜인이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가?
“四州와 五幸山 등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 그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가?
“올 정월에 博多州에 가니 赤間關·薩摩州 등지의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으로서 五峯이라 일컫는 자가 賊倭를 거느리고 중국에 入寇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 너는 오봉을 보았는가?
“平戶島에서 보았습니다. 3백 여 명을 거느리고 큰 배 한 척을 타고 있었는데 늘 비단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무리가 대략 2천 명쯤 되었습니다.”
- 그가 포로가 되어 그곳에 있게 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賊이 되기 위해 들어간 것인가?
“처음에는 물화의 교역 때문에 일본에 왔다가 賊倭와 결탁하여 왕래하면서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 노략질한 것은 어느 지역 사람의 것인가?
“阿波·伊豫·讃岐·土沙 4주 사람들과 五幸山 왜인들이 무리를 지어 와서 노략질했습니다.”

㉔ 采九德 撰, 『倭變事略』, ‘王直의 上書’

舊年 四月, 敵船大小千艘余가... 深入하여 부대를 나누어 약탈을 했습니다. 다행히... 바람에 막혀 장기간 머무르게 되어 식량도 다하였습니다. 결국 本國 五島지방으로 물러나, 家屋을 제맘대로 불태운 후에 서로呑噬하여 자멸해버렸습니다. 단지 그 사이 먼저 渡海할 수 있었던 자들은 이미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餘黨들은 순풍을 타고 海上에서 흘러 다니며 南으로는 琉球를 침구하고, 北으로는 高麗를 약탈한 후, 本國 菩蘭州로 돌아간 무리 또한 있었습니다.

㉕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10월 23일(임진)

왜구들이 해로(海路)를 통해 상국(上國)을 노략질한 뒤면 명주(明珠)·보패(寶貝)·진기한 비단(珍錦繡)·금은(金銀) 등이 모두 부산포(釜山浦)에 모입니다. 때문에 수령이나 변방의 장수 및 장사치들까지도 쌀이나 배를 수레에 싣거나 몸에 지고서 끊임없이 부산포(本鎮)로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다른 도(他道)의 수령들까지도 배로 운반해 오거나 육지로 수송해 와서 물화(物貨)를 교역하여, 남녘 백성들의 명맥을 모두 왜구의 손아귀에 들게 합니다.

<표2> 제주목사 재임 중 김수문의 왜구 토벌 공적

순번	『명종실록』의 기록	왜구 규모	전과	비고
1	명종 10년 7월 6일	1천여 인	斬獲甚衆	6월 27일 제주대첩
2	명종 10년 9월 12일	배1척?	참 54급	총통으로 적선을 불 지름 중국인 許秀 압송
3	명종 11년 6월 14일	배4척?	4척 포획. 사로잡아 목을 벤 수 (제주33·정의31·대정 33)	계본 3개
4	명종 11년 6월 15일	배1척?	1척 포획, 참 33급	3과는 별도의 계본
3·4	명종 11년 6월 17일	*왜선 5척은 중국에서 도적질을 하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해 온 자들		
5	명종 11년 7월 15일	배12척	2척 포획, 참 75급	많은 병기. 作賊之倭
참고	명종 12년 7월 5일	배26척		경내에 정박. 도적질 뒤 귀환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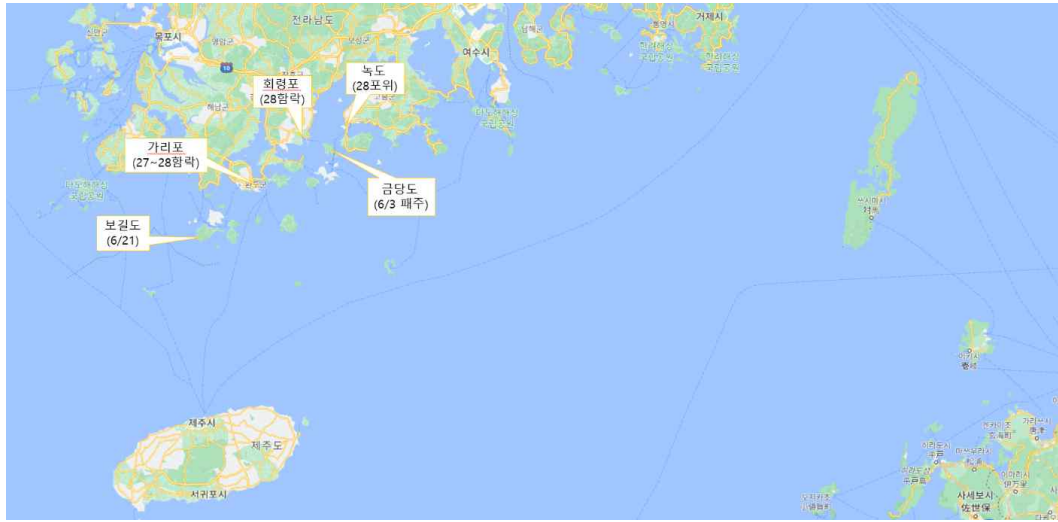
<표3> 을묘왜변 이전 제주도에서의 왜구 사건

	사료명	기록 시기 (음력)	왜구 규모	지역	비고
1	탐라기년	1540년(중종 35) 8월	왜, 침입	미상	목사 권진(權軫)과 판관 한근(韓瑾) 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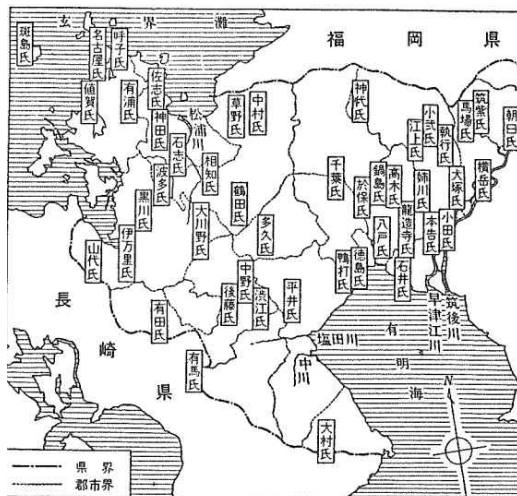
2	탐라기년	1552년(명종 7) 5월	왜, 침입	천미포 (川尾浦)	왜적 30명 한라산 잠입, 왜적 望古三夫羅 체포
3	명종실록	1552년(명종 7) 5월 30일	왜선 1척	천미포	질반이 중국인 식량과 배를 애걸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접전 1차 천미포 왜변
4	명종실록	1554년(명종 9) 5월 25일	왜선 1척	천미포	제주목사 남치근. 왜인, 汲水 위해 상륙 의복은 중국의 것과 비슷 2차 천미포 왜변(?)
5	명종실록	1554년(명종 9) 6월 8일	왜인 23명	비양도 (飛陽島)	章州에서 매매하고 돌아오다가 배가 난파 왜인 23명, 중국인 2명
6	탐라기년	1554년(명종 9) 7월	2척 포획	미상	*5·6월의 사실을 기록?
7	명종실록	1555년(명종 10) 7월 2일		제주성	을묘왜변
참고	명종실록	1555년(명종 20) 11월 9일			제주목사로 있을 때 왜선5~6척이 唐物을 가득 싣고 풍랑을 만나 표류해 와 정박했는데, 왜인들을 전부 죽이고 재화를 자신이 차지.

<표4>가정 34·35년의 倭寇상황(『日本一鑑·窮河話海』「流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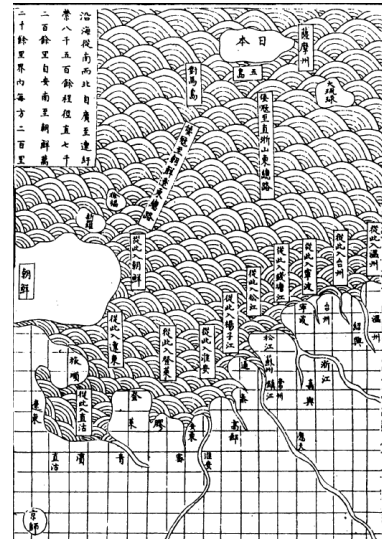
연도	내용	비고
가정33년 (1554)	賊首·徐海, 倭를 꺾어 直隸·浙江에 入寇	『籌海圖編』: 徐碧溪?
	賊首·吳德宣, 왜를 꺾어 柘林에 屯	『籌海圖編』: 吳德宣은 王直의 배하?
	蕭頭, 왜를 꺾어 嘉定을 습격	『籌海圖編』: 5월 관군에게 멸
	王阿八, 왜를 꺾어 蘇州를 습격	『籌海圖編』: 阿八王, 何亞八과 동일인?
	劉鑑, 왜를 꺾어 常熟을 습격	
	許二·許四, 番夷를 끌어들여 廣東을 휩쓸	
가정34년 (1555)	巡按浙江監察御史·胡宗憲, 독약(毒劑)을 써서 왜구를 王江涇에서 독살(4월)	
	*夏4월 辛卯, 鄭舜功 渡日.	
	賊首·許二, 廣東 해상에서 王濡(汝賢:王直의 조카)·徐洪(徐海의 동생)과 동행해 일본에 가서 王直·徐海·沈門 등과 만나고자 함.	
	許四, 몰래 가족을 데리고 許二의 배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함께 일본(倭)으로 가려 함.	
	賊首·林碧川, 왜를 꺾어 直隸·浙江에 入寇	沈南山 및 日本人·烏魯美他郎 등과 입구, (『籌海圖編』 33년?) 9월 出海했다가 해상에서 관군에게 포획
	王一枝(王直의 양아들, 阿九), 왜를 꺾어 入寇, 湖墅의 민가 27,000여 채를 불태우고 일본으로 돌아감	『嘉靖東南平倭通錄』: 5~7월 湖墅(潯墅:太湖北岸)에서 왜구의 침구
	*林碧川: 『籌海圖編』寇踪分合始末圖譜 鄧文俊·沈南山과 병칭. 일본의 陽哥(呼子?)에 屯.	
	工部右侍郎·趙文華, 王直을 초무하기 위해 일본에 사람을 파견	蔣洲·陳可願, 11월 11일 五島 도착
	許二의 배, 일본에 이르러 京泊의 津에 정박. 王濡는 王直, 徐洪은 徐海, 본인은 沈門과 高洲에서 만남	京泊의 津: 鹿兒島県 川内市の 항구. 高洲: 大隅의 高須, 鹿兒島県 鹿屋市
	許二, 중국으로 돌아갈 때 小琉球에 들러 섬의 나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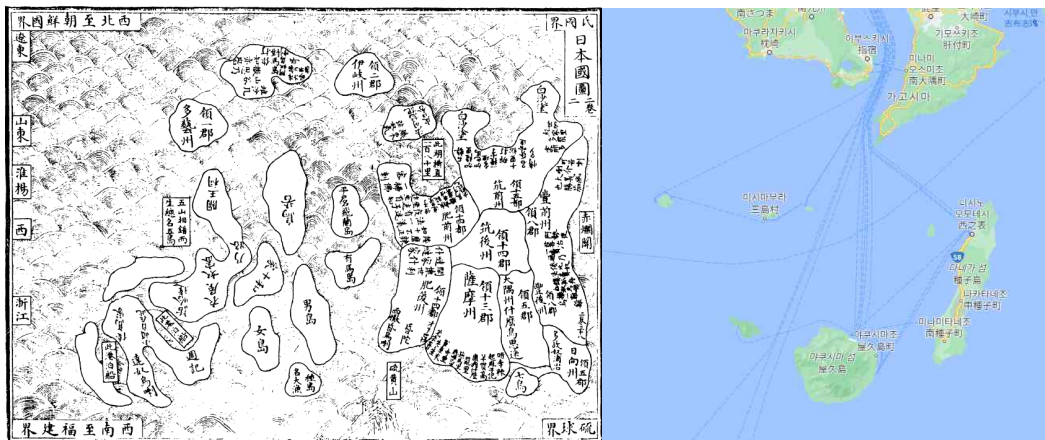
<지도1> 음력 5월 27일 이후 왜구의 동향



<天文・永録 무렵 히젠의 할거도>(출전:
『佐賀県の歴史』(1972))



<日本入寇圖>(『鄭開陽雜著』)



1555년 을묘왜변 제주대첩에 관하여

윤성익(경희대)

1. 서론
2. 관련 사료 및 내용상의 모순
3. 제주대첩에서의 의문과 추론
4. 후기왜구로서 을묘왜변의 특수성
5. 결론

1. 서론

1555년(명종 10) 음력 5월, 70여 척의 배를 타고 온 왜구들이 전라도에 상륙해 달랑성을 함락시키고 영암·강진·장흥·고흥 일대를 약탈한 을묘왜변(乙卯倭變) 혹은 달랑왜변(達梁倭變)이 발생했다. 왜구가 물러간 한 달 가량 뒤인 음력 6월 21일, 왜선 40여 척이 보길도(甫吉島)에서 제주 앞바다로 건너와 1리 정도의 거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한 뒤, 음력 6월 27일 1,000여 명이 상륙해 제주성을 공격했다. 제주목사 김수문(金秀文)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격퇴했다. 달랑왜변의 일로 마음이 상해있던 명종은 제주도에서의 승전소식을 듣고 ‘큰 승리’, 즉 ‘대첩(大捷)’이라고 표현하며 크게 기뻐했다.

달랑왜변에 대해 제주왜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건은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해왔다.¹⁾ 예를 들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을묘왜변’ 항목에는 제주도에서의 일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는 제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제주을묘왜변의 ‘재발견’ 작업이 진행되어 관련 연구 활동 및 서적이 발간되고²⁾ 지역 방송국의 TV 다`큐멘터리³⁾가 제작·방영되는 등 지역적으로는 적지 않은 반향이 있었다.⁴⁾ 그 과정에서 단순한 역사의 재발견에 그치지 않고 제주왜변을 넘어 ‘제주대첩’이라는 적극적인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묻혀있던 역사의 재발견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사의 관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활용하는 작업은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번 정립된 역사는 철옹성과 같다. 처음 쌓을 때부터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1) 2020년대 이전 제주을묘왜변에 대한 논문은 金炳夏, 「乙卯倭變考」(『耽羅文化』 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9)가 거의 유일하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편, 『치마돌격대-숨겨진 역사 유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0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편, 『학술세미나-을묘왜변과 지역사회의 대응, 역사문화자원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0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편, 『을묘왜변과 제주대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0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편, 『제주 역사의 재발견-을묘왜변 제주대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023.

3) 제주MBC “숨겨진 역사 을묘왜변 제주대첩”(2022년 10월 방영)

4) 2023년 6월 1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의 개막작으로 제주대첩을 소재로 한 ‘치마돌격대’가 공연되었다. (“1555년 제주 공동체 ‘대첩’ 역사를 연극 무대에”, 『미디어제주』 2023년 6월 2일;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개막”, 『제주도민일보』 2023년 6월 16일)

을묘왜변 제주대첩은 관련 사료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사료 사이에 대립적인 내용도 존재한다. 이들 사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후기왜구’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진상에 되도록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직접 사료 이외에도 폭넓게 관련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가정왜구(嘉靖倭寇)와 관련된 동향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대외침략에 대한 승전사 및 인물사적 시각이 중심이 될 경우 사건의 본질이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 바람직한 역사의 재발견을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전투양상, 활약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선생님들의 구체적인 연구가 있으므로⁵⁾ 필자는 후기왜구(가정왜구)의 사건이라는 시각에서 을묘왜변 제주대첩에 접근하고자 한다. 관련 사료·사실들의 검토와 당시 후기왜구의 상황 등을 종합해 달랑·제주왜변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이전 필자는 을묘왜변에 대해 논한 적이 있었는데⁶⁾ 당시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고 반성되는 적지 않은 부분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왜구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왜변을 일으켰던 주체(실행체)와 침략목적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주왜변, 혹은 달랑왜변까지 포함해 을묘왜변을 일으켰던 왜구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 번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2. 관련 사료 및 내용상의 모순

1) 제주 을묘왜변 관련 사료

제주 을묘왜변 관련 사료는 홍기표 선생님의 연구에 잘 정리 되어있다.⁷⁾ 그 중 제주대첩에 관해 가장 많은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1918)이지만, 왜구가 화북포에 상륙했다는 사실 정도가 특기할 만한 내용이고 그 근거자료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아울러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제외하고 빠진 부분을 추가하면 이하와 같다.

① 『명종실록』

㉠ 1555년(명종 10) 6월 28일

제주목사 김수문(金秀文)이 급히 장계를 올리기를, “이달 21일에 왜선 40여 척이 보길도(甫吉島)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1리가량의 거리에 닿을 내리고 정박해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삼공 및 비변사 당상을 명소(命召)하여 빈청에 모여 의논하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전라도에서 날뛰던 왜적들이 근래에는 나타나지 않아 이미 본토로 돌아간 것으로 여겼었는데 지금 또 제주에 나타났다고 한다. 만일 육지로 상륙하게 된다면 구원할 군사 및 활 잘 쏘는 사람을 많이 뽑아서 들여보내야 할 것이다. 만일 주사(舟師)로 협공(挾攻)하기로 한다면 미리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편, 『을묘왜변과 제주대첩』(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022)의 「Ⅲ. 을묘왜변 제주대첩과 치마돌격대」 및 홍기표, 「을묘왜변 제주 대첩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 『제주도연구』 59, 제주학회, 2023.

6) 윤성익, 「『後期倭寇』로서의 乙卯倭變」, 『한일관계사연구』 24, 2006.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편, 『을묘왜변과 제주대첩』(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022)의 「Ⅲ. 을묘왜변 제주대첩과 치마돌격대」 및 홍기표, 「을묘왜변 제주 대첩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 『제주도연구』 59, 제주학회, 2023.

심연원 등이 회계하기를,

“왜적들이 보길도에서 들어갔다면 필시 강진(康津)에서 도착질하던 자들이 중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신들이 듣건대, 순찰사가 지금 바야흐로 구원할 군사를 뽑아 보낸다고 했습니다. 만일 구원할 군사를 들여보내려면 다른 계책이 없고 마땅히 주사를 들여보내야 할 것입니다. 신들이 비변사로 물러가 다시 의논하여 조치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濟州牧使金秀文馳啓曰, “本月二十一日, 倭船四十餘隻, 自甫吉島, 直向州前, 距州一里許, 因下碇留泊.” 命召三公及備邊司堂上, 會議于寶廳, 傳曰, “全羅道 賊倭, 近不現形, 意其已還本土矣, 今又見形於濟州云. 若下陸, 則援兵及善射人, 當多抄入送矣. 若以舟師挾攻, 則預先措置何如?” 連源等回啓曰, “賊倭自甫吉島入去, 必康津作賊者, 留住於中間. 臣等聞之, 巡察使今方抄發援兵云. 若援兵入歸, 則別無他策, 當以舟師入送矣. 臣等請退于備邊司, 更議措置.” 答曰, “知道.”

㉠ 1555년(명종 10) 7월 6일.

제주목사 김수문이 장계를 올렸다. “6월 27일, 무려 1천여 인의 왜적이 물으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신이 날랜 군사 70인을 뽑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돌격하여 30보(步)의 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화살에 맞은 왜인이 매우 많았는데도 퇴병(退兵)하지 않으므로 정로위(定虜衛) 김직손(金直孫), 갑사(甲士) 김성조(金成祖)·이희준(李希俊), 보인(保人) 문시봉(文時鳳) 등 4인이 말을 달려 돌격하자 적군은 드디어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홍모두구(紅毛頭具)<투구이다.>를 쓴 한 왜장(倭將)이 자신의 활 숨씨만 믿고 홀로 물러가지 않으므로 정병(正兵) 김몽근(金夢根)이 그의 등을 쏘아 명중시키자 곧 쓰러졌습니다. 이에 아군이 승세를 타고 추격하였으므로 참획(斬獲)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濟州牧使金秀文狀啓, 六月二十七日, 倭賊無慮千餘人, 下陸結陣. 臣抄率驍勇軍七十人, 突入陣前, 相距三十步. 倭人中箭者甚多, 而尚未退兵, 定虜衛金直孫, 甲士金成祖李希俊, 保人文時鳳四人, 馳馬突擊, 賊軍潰散. 有一倭將, 着紅毛頭具, <盔也.> 自恃其能射, 獨不退北, 正兵金夢根射中其背, 卽顛仆. 我軍乘勝追擊, 斬獲甚衆.

㉡ 1555년(명종 10) 7월 7일.

제주목사 김수문에게 교서를 내렸다. “...지금 경의 치계(馳啓) 내용을 보고 지난날 27일의 승전(勝戰)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니 나의 근심이 크게 감해졌다.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공격하여 이와 같은 큰 승첩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김직손 등 4인이 돌격한 공로도 역시 작은 것이 아니나, 이는 경이 몸소 사졸에 앞서 갈날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그들의 용맹을 고무시킨 소치가 아니겠는가...”

下書于濟州牧使金秀文曰, ... 今見卿馳啓之辭, 備知前月二十七日克捷之狀, 予心之憂, 十減七八. ... 能以寡擊衆, 致此大捷乎. 金直孫等四人突擊之功, 亦不爲少, 然此非卿身先士卒, 冒白刃馳進, 以鼓其勇之所致耶. ...

㉢ 황우헌(黃祐獻), 「운주당(運籌堂) 기문(記文)」(1568년 봄)⁸⁾

8) 운주당(運籌堂)은 1568년(선조 1) 창건된 제주성의 장대(將臺)로 교수(教授) 황우헌(黃祐獻)이 쓴 기문이 이 원진의 『탐라지』에 전하며, 그 이후에 편찬된 제주도 읍지에도 대부분 실려 있다. 『명종실록』 이외의 읍묘 왜변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고 제주도민의 직접 기록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555년(명종 10) 여름에 해구(海寇)가 침범하여 이리저리 날뛰며 성을 포위하고는 높은 능선[高陵]에 웅크리고서 성안을 내려다보며 접근을 하는데 화살과 돌이 뒤섞여 내려오니, 군진의 허실과 사졸의 강약은 등불을 켜고 숫자를 헤아리듯 점칠 수 있었다.

乙卯之夏 海寇憑陵奔突圍城 而盤據高陵臨壓城中矢石交下 則軍陣虛實士卒強弱 若燭照數計而龜卜矣.

③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1601년)

목사 김수문. 을묘(乙卯, 1555)에 왜구가 강진(康津)에서 쫓아 와서 침범하였으며, 포위된 지 3일간 굳게 지켰다. 적들이 스스로 물러날 때를 기다려 곧 출격하여 승리를 거두니, 교서를 내려 포상하였다.

牧使 金秀文. 乙卯倭寇自康津追來犯 被圍三日堅守 以待竣賊自退 卽出擊獲捷 賜教書褒獎.

④ 이원진, 『탐라지(耽羅志)』(1653년), ‘명환(名宦)’

김수문. 제주목사가 되어 왜적이 성을 포위한 지 3일 만에 물러가자, 수문이 날랜 정에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적을 베거나 사로잡았으며, 또 왜선 9척을 포획하였다.

金秀文. 爲牧使. 倭賊圍城三日乃退, 秀文率輕銳追擊斬獲. 又捕倭船九艘.

⑤ 『대동야승(大東野乘)』 중 조경남(趙慶男, 1570~1641), 『역대요람(歷代要覽)』(?) ‘가정 34년’

목사 김수문이 고군(孤軍)으로 힘껏 막아 그들이 퇴각(退却)하기를 기다려 추격해 크게 부수었다.

又犯濟州, 屯于城外. 牧使金秀文以孤軍力拒, 俟其退去, 追擊大破之.

⑥ 이형상(李衡祥), 『남환박물(南宦博物)』(1704년), ‘지명환(地名宦)’

김수문. 왜적이 성을 포위한 지 3일 만에 물러가자, 추격하여 적을 베었다. 또한 9척의 배를 포획하였다.

金秀文. 倭賊圍城三日乃退 追擊斬獲 又捕九艘.

⑦ 이금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1700년대 후반?) 「명종조고사본말(明宗朝故事本末)」

패해 달아나던 (왜)적이 제주를 침범하니, 목사 이수문(李秀文)이 힘껏 막다가, 물러나기를 기다려서 추격하여 대파하였다. 『고사촬요』

退遁之賊犯濟州, 牧使李秀文, 力拒俟其退, 追擊大破之. 攷事撮要.

⑧ 윤시동(尹蓍東),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1765년)

㉓ ‘명환(名宦)’

김수문. 제주목사를 하였다. 왜적이 제주성을 포위한 지 3일 만에 물러가자, 수문이 날랜 정예병을 이끌고 추격하여 적을 베거나 사로잡았으며, 또 왜선 9척을 포획하였다.

金秀文. 爲牧使. 倭賊圍城三日乃退, 秀文率輕銳追擊斬獲. 又捕倭船九艘.

㉔ ‘고금사적(古今事蹟)’

(가정) 34년 명종대왕 10년 을묘년, 김수문 목사가 또한 왜적을 붙잡은 공로로 가의대부를 가자(加資)하고 겹옷과 속옷 한 벌씩을 하사하였다. ...왜적이 다시 제주목을 침범하니 김수문이 고립된 군사로 힘껏 싸워 항거하다가 적이 물러나자 뒤쫓아 가서 크게 무찔렀다.

三十四年, 明宗大王十年乙卯, 牧師金秀文亦以捕倭功, 加嘉義, 賜表裏一襲. ...倭賊又犯濟州, 秀文孤軍力拒之, 俟其退去, 追擊大破之.

<표 1>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사료⁹⁾

연번	사료명	기록 시기 (음력)	간략 내용	비고
① ㉓	명종실록	1555(명종 10). 06. 28	왜선 40여 척(6월 21일), 제주 앞바다 1리 정박	
① ㉔	명종실록	1555(명종 10). 07. 06	상륙(6월 27일), 왜적 1,000여 명, 효용군 70명, 4명의 치마돌격. 홍모투구의 적장 사살	김수문의 장계
① ㉔	명종실록	1555(명종 10). 07. 07	승전 보고 접수, 대첩	
②	운주당기문(황우현)	1568(선조 1) 봄	제주성 포위, 왜군 진중(높은 능선)	출전(이원진 『탐라지』)
③	남사록(김상헌)	1601(선조 34). 09. 22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관풍안 명환(김수문)
④	탐라지(이원진)	1653(효종 4)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왜선 9척 포획	명환(김수문)
⑤	역대요람(조경남)	17세기 중반 ?	후퇴 왜구, 추격해 대파(大破)	『대동야승』 수록
⑥	남한박물(이형상)	1704(숙종 30)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왜선 9척 포획	지명환(김수문)
⑦	연려실기술(이공익)	18세기 후반?	후퇴 왜구, 추격해 대파(大破)	인명 오기(이수문)
⑧	증보탐라지(윤시동)	1765(영조 41)	제주성 포위, 3일 전투, 왜선 9척 포획	명환(김수문) · 고금사적

2) 전투 상황의 모순 : 김수문 장계에의 의문

제주대첩에 대해 가장 상세한 사실을 전하는 사료는 ①-㉔ 김수문의 장계 내용이다. 총 118자에 불과하지만, 후대의 다른 사료와 비교해 가장 긴 내용이고 무엇보다 당사자에 의한 당시의 기록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음력 6월 27일 1,000여 명의 왜구가 상륙했고 그 날 김수문이 70명의 효용군을 이끌고 왜구를 물리친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①-㉔에서 보고를 들은 명종이 “지난달 27일의 승전(前月二十七日克捷)”이라고 말했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반면 그 이외의 후대 기록들에는 대체로 왜구가 3일간 제주성을 포위했던 것으로 되어있다.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편, 『을묘왜변과 제주대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022, pp.181~182의 표를 일부 수정·보완.

또한 왜구에 대한 승전의 양상도 김수문의 장계에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왜구를 맞아 싸운 것으로 묘사되어있지만, 다른 기록들은 왜구가 (스스로) 물러나자 이를 추격해 격파했다고 되어있어서 꽤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의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할까?

『명종실록』 이외의 다른 기록들은 상당히 후대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명종실록』의 내용을 우선시해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이 생생했을, 사건 발생 10여년 후에 작성된 ② 「운주당 기문」에는 3일이라는 시일이 나오지 않지만 왜구가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명종실록』 명종 18년 6월 11일 기사에 김수문에 대한 세주(細註)에도 ‘왜구가 성을 포위했다’¹⁰⁾고 되어있다. 세주는 선조 초 『명종실록』이 편찬될 때 작성된 것이므로 「운주당 기문」의 작성시기와도 비슷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왜구가 27일에 상륙해 당일 승전했다는 김수문의 보고는 사실 그대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수문의 보고 내용에서 또 다른 의문은 제주대첩의 전과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제주대첩 이후 김수문은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왜구를 단속·토벌했다. 그 공적으로 그는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는데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대첩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자신의 전과를 보고했다. ‘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는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이다. 70여 명이 1,000여 명을 물리친 대첩이라고는 해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이 된다.

<표2> 제주목사 재임 중 김수문의 왜구 토벌 공적

순번	『명종실록』의 기록	왜구 규모	전과	비고
1	명종 10년 7월 6일	1천여 인	斬獲甚衆	6월 27일 제주대첩
2	명종 10년 9월 12일	배1척?	참 54급	총통으로 적선을 불 지름 중국인 許秀 압송
3	명종 11년 6월 14일	배4척?	4척 포획. 사로잡아 목을 벤 수 (제주33·정의31·대정 33)	계본 3개
4	명종 11년 6월 15일	배1척?	1척 포획, 참 33급	3과는 별도의 계본
3·4	명종 11년 6월 17일	*왜선 5척은 중국에서 도적질을 하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해 온 자들		
5	명종 11년 7월 15일	배12척	2척 포획, 참 75급	많은 병기. 作賊之倭
참고	명종 12년 7월 5일	배26척		경내에 정박. 도적질 뒤 귀환하는 자.

이와 관련해 김수문에 대한 『탐라지』 등의 “또 왜선 9척을 포획하였다.(又捕倭船九艘)”는 내용을 제주대첩 때의 전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 앞의 서술된 내용-제주대첩-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한다. 김수문에 앞서 ‘남치근(南致勤)’에 대해서는 “왜선 2척을 포획했다(捕倭船二艘)”는 공적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치근이 제주목사로 있을 때의 전체 공적이었다.(<표3> 참조) 따라서 김수문의 ‘또 왜선 9척 포획’도 제주대첩 이후 그가 목사로 재직하면서의 공적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3> 을묘왜변 이전 제주도에서의 왜구 사건¹¹⁾

10) 『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1563) 6월 11일(정사). “乙卯年爲濟州牧使, 倭寇圍城, 以寡禦衆, 卒有大功.”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편, 『을묘왜변과 제주대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022, pp.144~146의 표를 일부 수정·보완.

	사료명	기록 시기 (음력)	왜구 규모	지역	비고
1	탐라기년	1540년(중종 35) 8월	왜, 침입	미상	목사 권진(權軫)과 판관 한근(韓瑾) 파직
2	탐라기년	1552년(명종 7) 5월	왜, 침입	천미포 (川尾浦)	왜적 30명 한라산 잠입, 왜적 望古三夫羅 체포
3	명종실록	1552년(명종 7) 5월 30일	왜선 1척	천미포	절반이 중국인 식량과 배를 애걸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접전 1차 천미포 왜변
4	명종실록	1554년(명종 9) 5월 25일	왜선 1척	천미포	제주목사 남치근. 왜인, 汲水 위해 상륙 의복은 중국의 것과 비슷 2차 천미포 왜변(?)
5	명종실록	1554년(명종 9) 6월 8일	왜인 23명	비양도 (飛陽島)	章州에서 매매하고 돌아오다가 배가 난파 왜인 23명, 중국인 2명
6	탐라기년	1554년(명종 9) 7월	2척 포획	미상	*5·6월의 사실을 기록?
7	명종실록	1555년(명종 10) 7월 2일		제주성	을묘왜변
참고	명종실록	1555년(명종 20) 11월 9일			제주목사로 있을 때 왜선 5~6척이 唐物을 가득 싣고 풍랑을 만나 표류해 와 정박했는데, 왜인들을 전부 죽이고 재화를 자신이 차지.

김수문의 인물됨에 대한 후대 사관(史官)들의 평가는 대체로 매우 긍정적이지만, 1552년(명종 7) 파직된 뒤 3년 만에 제주목사가 되어 과거의 오명을 만회하고자 실제 사실과는 다른 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김수문을 무조건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 무렵 제주도에서 조정으로 (특히 왜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고가 적지 않았던 점도¹²⁾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확실한 것은 ①-④의 내용 모두를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번 의심이 들면 끝이 없을 수 있겠지만, 왜선 40여 척과 1,000여 명이라는 숫자도 조금 의문이 든다. 당시 왜선의 승조인원은 대선-3백 명, 중선-1~2백 명, 소선-4~5십 명 혹은 7~8십 명이었다고 한다.¹³⁾ 이를 토대로 생각하면 선박 40여 척에 비해 상륙한 1,000여 명의 숫자는 너무 적은 감이 있다.¹⁴⁾

사료의 일부 내용이 부정될 경우 다른 내용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매우 큰 고민이다. 자칫하면 아전인수의 해석이 되어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매우 적은 수의 사료 밖에 없는데 전체 내용을 버릴 수도 없다. 최선은 사료 간 대립되는 부분을 비교·검토해 사실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수문의 장계와 다른 기록들을 종합해 생각하면 왜구와의 전투는 3일간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수문이 6월 27일에 승전했다는 보고를 했으므로 이것에 의하면 왜구가 상륙한 것은 6월 25일이 된다. 6월 21일의 사실에 대해 7일 후인 28일 조정에서 의논되었는데(사료 ①-㉞) 27일의 승전 후 김수문의 장계는 비슷한 시일이 소요되어 7월 6일 조정에 전

12)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5월 30일(신해).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7월 30일(경술).

『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 9월 20일(계사).

『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8월 7일(계축).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11월 9일(임인).

13) 『주해도편』 2권, 「倭船」.

14) 같은 시기 중국에서도 ‘왜선 30여 척, 무리 1,000여 명’이라는 비율의 기록이 있기는 하다. 『嘉靖東南平倭通錄』 권2, 가정 34년 5월, “倭舟三十餘艘, 眾約千餘人, 自海陽突犯蘇州青村, 所攻城不克, 遂縱火自焚其舟, 登岸肆劫.”

해졌던 것으로 보면 27일의 승전은 타당해 보인다.¹⁵⁾

전투의 구체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3일 간의 대치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왜구가 성을 포위했었다는 사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왜구가 (스스로) 물러났을 때” 김수문이 이를 추격해 크게 무찔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수문의 장계에서 진을 친 왜구에게 돌격해 적군을 퇴각시켰다는 내용과 상반된다. 3일간의 전투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역시 장계의 내용보다는 다른 기록들에서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왜구가 물러났다”는 쪽이 실제에 가까웠다고 할 수밖에 없다. 김수문이 일부 사실을 개변(改變)했다면 장계에서의 구체적인 전투 묘사-4인의 치마돌격대 및 홍모투구의 왜장 사살-는 포위를 풀고 퇴각하는 적을 추격했을 때의 상황일 것이다.

별 것 아닌 문제처럼 보이지만 왜구의 이런 행동은 왜변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달랑왜변에서 왜구는 5월 11일 상륙해 3일간의 포위 끝에 5월 13일 달랑성을 함락하고¹⁶⁾ 그 후 보름가량에 걸쳐 각지를 약탈했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3일간 제주성을 공격(?)한 뒤 물러났다. 물론 김수문의 지휘 하에 제주의 군·관·민이 협력해 철저하게 항전했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왜구가 퇴각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이 있다. 그 무렵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일원에 출몰했던 후기왜구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제주에 상륙했던 왜구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라고도 추측가능하기 때문이다.

3. 제주대첩에서의 의문과 추론

1) 달랑왜변과 제주왜변의 왜구는 동일 집단이었는가?

왜구의 침입으로 일어난 을묘왜변은 총 두 차례 발생하였다. 1차 침입은 1555년(명종 10) 5월 11일 왜구 선단 70여 척이 전라남도 남해안 쪽에 침입하면서 일어났다. ... 결국 치열한 전투 끝에 왜구들이 5월 28일 가리포와 회령포 함락에 이어 녹도까지 포위하였는데, 6월 3일 남치근이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하자 왜구들이 퇴각하면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퇴진하던 왜구 1천여 명이 6월 21일 왜선 40여 척에 나누어 타고 제주 앞바다를 건너 6월 27일 화북포로 밀고 들어왔고 제주목 주성을 둘러싸고 3일간의 전투가 펼쳐졌다. 이것이 바로 을묘왜변 2차 침입이다.¹⁷⁾

위 내용처럼 1555년 두 차례의 왜변은 일반적으로 동일 집단에 의해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金炳夏의 「乙卯倭變考」에서는 “명종 10년 5월에 달랑포에 침입했던 왜구와 동일 집단이라고 생각된다. 달랑포 침입에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던 왜적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왜변은 그들의 사활문제가 걸려 있는 도전이었다.”¹⁸⁾고 하여 제주도에 침입했던 이유(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달랑왜변과 제주왜변은 동일 집단이 연속적으로 벌인 사건이었다는 유력한 사료적 근거는 ①-

15) 홍기표, 「을묘왜변 제주 대첩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제주도연구』 59, 제주학회, 2023)는 ‘6월 27일 상륙, 29일 승전’으로 서술하고 있다.

16)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30일(계해).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편, 『치마돌격대-숨겨진 역사 유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021, p.15.

18) 金炳夏, 「乙卯倭變考」, 『耽羅文化』 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9, p.84.

㉔이다. “음력 6월 21일 왜선 40여 척이 보길도(甫吉島)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1리가량의 거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다.”는 김수문의 보고를 조정에서 의논하면서 “전라도에서 날뛰던 왜적들이 근래에는 나타나지 않아 이미 본토로 돌아간 것으로 여겼었는데 지금 또 제주에 나타났다고 한다.”고 명종이 말하고 이에 대해 대신들이 “왜적들이 보길도에서 들어갔다면 필시 강진(康津)에서 도적질하던 자들이 중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고 답했던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단순한 어림짐작일 뿐이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전라도에서의 왜변이 종결되는 것은 음력 6월 3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명종실록』에 기록된 마지막 모습은 다음과 같다.

녹도(鹿島)에서 포위를 쏜 뒤에 왜선 28척이 금당도(金堂島)로 물러가 정박했는데, 6월 3일 남치근이 병사·수사와 함께 전함 60여 척을 가지고 셋으로 나누어 60여 리까지 추격하자, 왜선 26척이 화살에 맞아 기세가 궁해져 먼저 패주하고 2척은 그 뒤를 막아주며 대항했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난사(亂射)하자 왜적들이 거의 모두 화살에 맞아 한 배에 합쳐 타고 1척은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날이 저물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¹⁹⁾

즉, 음력 6월 3일에 패주한 왜구가 18일 뒤인 21일 보길도에 갑자기 나타났고 제주도로 왔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왜구들은 어디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18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규모 왜구선단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다. 당시 전라도 해안지대는 극도의 계엄 상태였다. 금당도에서 도망쳤을 때의 27척, 혹은 보길도에 나타났을 때의 40여 척이라는 대규모 선단이 은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무렵의 보길도는 왜선 1척이 나타나도 곧 단속되었던 곳이기도 하다.²⁰⁾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전라도 순찰사 이준경(李浚慶)은 뒤에 서울에 돌아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

녹도(鹿島)의 치보에 의해 적선이 본보(本堡)의 건너편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남치근과 조안국에게 달려가 지원하게 하였으며, 신도 보성(寶成)으로 가서 지원하려 하였습니 다. 그런데 또 적선이 나뉘어 우도(右道)로 향한다는 소문이 들어왔으므로 그대로 나주에 머문 채 중간에 위치하여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석에게는 그대로 영암에 머물러서 우도를 방비하게 했습니다. 적이 녹도에서 패배한 뒤에 또 적선이 백량(白梁)·보길(甫吉) 등에 많이 정박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병선(兵船)을 모아 최호(崔豪)로 하여금 진격하게 하고 조안국으로 하여금 이어서 지원하게 했으나 적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적선의 수는 대개 50척에 불과했습니다.²¹⁾

위의 내용은 6월 3일의 금당도와는 별건인데, 이에 의하면 금당도에서 도망친 27척 외에 별도로 50척의 왜구집단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를 합하면 달랑포에 처음 나타났던 70여 척²²⁾과 비슷한 규모가 되지만 아무래도 이 내용은 이상하다. 애초에 녹도에서 포위를 풀고 금당도로 물러난 왜구의 선박은 28척이었다. 이준경은 왜구가 녹도 등을 공격할 때 나주에 머무

19)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6월 12일(을해).

20) 『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6월 8일(정축)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7월 17일(계유)

21)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8월 15일(정축)

22)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6일(기유)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30일(계해)에는 “60여 척”으로 되어있다.

으며 직접 출진하지 않았는데 위 내용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변명처럼 보인다.²³⁾ 여하튼 이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50척이 도망간 뒤 어디로 숨었다가 다시 보길도에, 이번에는 40여 척으로 나타난 게 된다. 숫자와 동선(動線)도 뒤죽박죽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런 대규모 선단이 18일 가량 발각되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도1> 음력 5월 27일 이후 왜구의 동향

더욱 큰 의문 혹은 문제점은 음력 6월 3일부터 21일, 실제로는 25일(혹은 27일)까지 왜구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부분이다. 당연하지만 20여 일을 지내려면 그 만큼의 식량과 물이 필요하다. 왜구들은 많은 군량을 약탈했으므로 식량은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물은 조금 사정이 다르다. 당시 일본에서 중국으로 항해할 때는 각 사람당 물 400근, 약 800주발(椀)을 가져와 매일 6주발의 물을 사용했는데,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항상 아껴서 사용했다.²⁴⁾ 일본의 고토(五島)부터 중국 절강(浙江)연안까지는 빠르면 5~6일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²⁵⁾ 식수도 그에 비례해 실었다.(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 식수 문제는 당시 조선에서 발생했던 왜구사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물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²⁶⁾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배 안에 있던 식수만으로는 20여일을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륙해 식수를 구했어야 하는데 20여 일간 그런 형적은 없다.

식수에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2~3일이면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그들의 근거지로 돌아갈 수 있는데 힘들게 약탈한 식량을 소비하며 조선의 연안에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태풍과 같은 기상 악화로 항해가 불가능했던 피치 못할 상황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실제로 금당도 해전 직전, 바다의 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명종실록』 6월 10일의 기록에는 “녹도 관할인 외딴 섬 속에 왜선 20여 척이 정박해 있으면서 파도가 거

23) 이준경은 달랑왜변 뒤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명종실록』의 사관들은 그의 행동을 반복해서 비난했다.

24) 『주해도편』 2권, 「倭船」.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배는 고토(五島)에서 취수한 뒤 바다를 건너 下八山(馬鞍列島; 상해 동동남 해상)·陳錢(舟山島)을 지나면 반드시 하선해 물을 길었다고 한다.

25) 『주해도편』 12권, 「經略二」, ‘御海洋’

26) 『주해도편』 2권, 「倭船」, “冬寒稍可耐久, 若五六月, 蓄之桶中二三日即壞, 虽甚清冽不能过数日也.”

칠기 때문에 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고 되어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6월 3일 이전의 일로 6월 중순부터는 조선 전국에 걸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다. 항해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참고로 태풍으로 생각되는 기상 상황은 음력 7월 초²⁷⁾ 및 7월 말²⁸⁾에 보인다.

을묘왜변은 후기왜구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당시 후기왜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555년은 가정왜구의 극성기라고 불린다. 그런 만큼 왜구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는데, 주의할 점은 이 때 활동한 왜구집단이 매우 다양했다는 것이다. 鄭舜功, 『日本一鑑·窮河話海』 「流通」의 내용²⁹⁾에서 그 무렵 왜구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가정 34·35년의 倭寇상황

연도	내용	비고
가정33년 (1554)	賊首·徐海, 왜를 피어 直隸·浙江에 入寇	『籌海圖編』: 徐碧溪?
	賊首·吳德宣, 왜를 피어 柘林에 屯	『籌海圖編』: 吳德宣은 王直의 배하?
	蕭頭, 왜를 피어 嘉定을 습격	『籌海圖編』: 5월 관군에게 멸
	王阿八, 왜를 피어 蘇州를 습격	『籌海圖編』: 阿八王, 何亞八과 동일인?
	劉鑑, 왜를 피어 常熟을 습격	
	許二·許四, 番夷를 끌어들여 廣東을 휩쓸	
가정34년 (1555)	巡按浙江監察御史·胡宗憲, 독약(毒劑)을 써서 왜구를 王江涇에서 독살(4월)	
	*夏4월 辛卯, 鄭舜功 渡日.	
	賊首·許二, 廣東 해상에서 王濡(汝賢:王直의 조카)·徐洪(徐海의 동생)과 동행해 일본에 가서 王直·徐海·沈門 등과 만나고자 함.	
	許四, 몰래 가족을 데리고 許二의 배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함께 일본(倭)으로 가려 함.	
	賊首·林碧川, 왜를 피어 直隸·浙江에 入寇	沈南山 및 日本人·烏魯美他郎 등과 입구, (『籌海圖編』 33년?) 9월 出海했다가 해상에서 관군에게 포획
	王一枝(王直의 양아들, 阿九), 왜를 피어 入寇, 湖墅의 민가 27,000여 채를 불태우고 일본으로 돌아감	『嘉靖東南平倭通錄』: 5~7월 湖墅(湖墅:太湖北岸)에서 왜구의 침구
	*林碧川: 『籌海圖編』 寇踪分合始末圖譜 鄭文俊·沈南山과 병칭. 일본의 陽哥(呼子?)에 屯.	
	工部右侍郎·趙文華, 王直을 초무하기 위해 일본에 사람을 파견	蔣洲·陳可願, 11월 11일 五島 도착
	許二의 배, 일본에 이르러 京泊의 津에 정박. 王濡는 王直, 徐洪은 徐海, 본인은 沈門과 高洲에서 만남	京泊의 津: 鹿兒島県 川内市の 항구. 高洲: 大隅의 高須, 鹿兒島県 鹿屋市
	許二, 중국으로 돌아갈 때 小琉球에 들러 섬의 나무를 훔치다가 섬사람들에게 살해됨	

각 왜구집단은 협력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적대적인 경우도 있는 등 왜구집단은 그

27)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5일(정유).

28)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28일(경신).

29) 鄭舜功, 『日本一鑑·窮河話海(下)』(海上丝绸之路基本文献丛书), 文物出版社, 2022, pp.23~26.

야말로 다양했다. 위의 표에서 자주 묘사되는 것처럼 중국인 출신의 지도자는 일본에서 왜인을 꺾어[勾引] 중국으로 가서 약탈이나 밀무역을 했고 그 결과물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왔다. 서해(徐海)가 자림(柘林)에 거점을 두었던 것처럼 한 곳에 거점을 두고 주변 지역으로의 약탈을 펼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게 기존에 활동하던 왜구에 새로운 왜구=新倭가 합류하기도 했다.³⁰⁾ 이처럼 당시 동아시아의 해상은 많은 왜구집단 혹은 이에 준하는 선박들이 왕래하고 있었다.

달랑왜변이 한창이던 5월 17일의 기록에는 전라좌도 나로도(羅老島)에 왜선 2척이 정박했는데, 이를 추격해 31명의 머리를 베었다³¹⁾고 되어있다. 이 일은 달랑왜변과는 무관한 사건이었다. 즉 달랑왜변의 왜구와는 별도의 왜구(?)가 같은 시기에 조선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6월 14일의 기록에는 대마도에서 “적선(賊船) 1천여 척이 오도(吾島) 등의 섬에서 도적질을 한 다음에 90여 척이 세 무리로 나누어 떠났으니 반드시 조선으로 향했을 것이다.”라고 알려왔다는 내용이 있다.(실제로 21일 왜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고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점이 많아 다음 장에 다시 다루겠다.) 18일의 간격을 두고 갑자기 나타난 왜구선단 역시 별개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

2) 제주에 침입한 왜구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달랑왜변은 “(음력) 5월 11일 왜선 70여 척이 달랑 밖에 와서 정박했다가” 상륙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실은 그 이전에 “왜선 11척이 바다 섬에 나타났다가 상륙하여” 가리포 첨사 이세린(李世麟)이 이를 병사(兵使) 원적(元績)에게 알렸었다.³²⁾ 즉 왜선이 처음 목격된 곳은 가리포-완도 주변의 해상이었다. “이 왜놈들은 중국에서 도적질하여 이득을 취한 다음 우리 변방에 침범해 온 것”³³⁾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에서 출발해 서남쪽 해상으로부터 항해해왔기 때문이다.

음력 6월 21일 보길도에 나타났던 왜구선단 역시 중국에서 출발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달랑왜변의 경우는 본격적인 약탈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왜구선단의 목적지가 조선의 연안일 수 있었겠지만, 제주왜변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주도에 침입한 왜구의 행동은 이상한 점이 많다. 3일 뒤에 스스로 물러난 것도 그렇고 김수문의 보고를 신뢰한다면, 21일부터 25일, 혹은 27일까지의 4~6일간 바다가운데 배를 정박시켜놓은 채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다. 태풍 등 기상상태가 안 좋았다면 비록 1리라는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지만 해도 제주 앞바다에서 그냥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1,000여 명이 상륙해 진을 쳤다. 김수문의 보고내용만 보면 이들 왜구가 먼저 공격했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3일 뒤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 된다. 왜구는 제주도에 왜 왔던 것일까?

<표2> · <표3>에서와 같이 을묘왜변을 전후해 제주도에는 적지 않은 왜구사건들이 있었다. 그 사건들은 을묘년의 왜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먼저 왜구집단(혹은 이에 준하는 집단)이 나타났던 시기가 대체로 음력 5월부터 8월 사이였다

30) 예를 들어 1555년(가정 34) 『명 세종실록』의 4월 7일, 5월 1일, 5월 12일, 6월 12일조에는 기존의 왜구에 신왜(新倭)가 와서 합세했던 정황이 기록되어있다.

31)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7일(경술)

32)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6일(기유)

33)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8일(신해)

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항해는 음력 3월의 청명(淸明)부터 음력5월까지, 음력 9월의 중양(重陽)부터 10월까지가 가장 유리해서 중국의 바다를 방어하는 사람들(防海者)은 3·4·5월을 한 사리(大汛)로 삼고 9·10월을 작은사리(小汛)로 여겼다. 그리고 그 중간의 시기인 단오(음력 5월 5일)부터 중추(음력 8월 15일)까지는 반대로 중국의 동남연안에서 일본으로의 항해가 유리한 시기였다.³⁴⁾ 『명종실록』에서도 “복건성 상선이 일본을 왕래한 것은 꼭 여름과 가을 사이”³⁵⁾라고 되어있다.

물론 음력 5월부터 8월까지의 사이에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항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이 조선에 흘러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³⁶⁾ 그렇지만 표의 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선박이었다. 이것은 비단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의 연안에 나타나 때로는 지역의 관현에게 토벌(?)되었던 왜선이나 황당선들은 중국에서 밀무역을 하거나 혹은 약탈을 한 뒤 귀중한 화물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던 배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선박들이 제주도를 비롯한 조선의 연안에 나타났던 것은 풍랑 등의 이유로 예정했던 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표2>·<표3>에서처럼 을묘년 이전 제주도의 대표적 왜구 사건인 1552년의 (1차)천미포왜변, 1554년 6월 비양도의 황당선, 1556년 김수문이 포획한 5척의 왜선, 그리고 남치근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건들은 모두 공식적으로 표류가 확인되었으니 말할 것도 없고 1554년 5월 천미포의 왜선(2차 천미포왜변)도 식수를 확보하려고 정박·상륙했던 것으로 비상사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

앞 장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항해에서 식량과 식수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였다. 표류 등 정상적인 항해가 이루어지지 못해 예정했던 것보다 항해가 길어지면 생존을 위해 식수와 식량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야한다.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1552년 천미포왜변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조선에서는 “표류하는 왜인을 한 번도 돌려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방 장수는 그들을 죽여 상 받기를 구”³⁸⁾하는 상태였다. 중국인들은 사정이 그나마 조금 괜찮았지만, 왜선이나 황당선의 표류자들이 조선의 땅에 상륙해서 평화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해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³⁹⁾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1555년의 제주왜변을 생각해보자. 제주 앞바다에 정박했던 왜구선단은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항행 중 예정 항로를 벗어나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40여 척의 선박인데 1,000여 명이 상륙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탑승원의 수를 생각했을 때 상당수는 그대로 배에 머물러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해 함락시키려는 의도였다면 이렇게 행동했을 리 없다.

34) 『주해도편』 2권 「倭國事畧」

35)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7월 3일(계미)

36) 예를 들어 명종 8년 6월, 오우치(大內)가 명에 파견했던 건명선이 풍랑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거쳐 진도로 와서 정박한 일이 있다.(『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6월 12일(정해))

37) 해당 기사와 사론(史論)에서는 “지금 제주의 왜는 우리의 국경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배 한 척이 표류해온 것으로 다만 힘없는 한 척의 상선에 불과한 것”이라며 남치근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5월 25일(갑자))

38)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 7월 24일(무진)

39) 달랑왜변 때 왜인들의 “너희 나라가 우리들과 교분이 매우 두터웠는데 요사이 3~4년 동안 우리나라의 죄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는 말도 이런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9일(임자))

상륙의 목적은 다른 왜구사건들을 통해 식수와 식량의 확보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3일 간의 대치 끝에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은 상륙했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제주도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10년 뒤 “제주는 을묘년에 왜변을 겪고 난 이후 옛날의 번성함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⁴⁰⁾는 것으로 보아 제주성은 무사했지만 그 외의 지역, 특히 민가에서는 꽤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일 정도면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일본으로 돌아갈 정도의 식량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후기왜구로서 을묘왜변의 특수성

1555년은 중국의 가정왜구(후기왜구)가 극성을 이루었던 때였다. 1555년 이후에도 한동안 중국에서는 왜구가 맹위를 떨쳤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시기에 조선에 대규모 왜구가 육지에 상륙해 본격적으로 약탈활동을 벌였던 것은 을묘왜변 딱 1번뿐이다. 후기왜구로서 을묘왜변은 매우 특수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을묘왜변은 왜 발생했던 것인지, 후기왜구의 조선 침입은 왜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고찰해보겠다.

1) 누가했는가?

을묘왜변이 후기왜구, 즉 중국인과 일본인들로 구성된 왜구에 의한 것이었음은 재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을묘왜변을 일으켰던 것이 후기왜구 중에서도 누구였는지에 대한 유력한 사료가 있다. 『명종실록』 명종 11년 4월 1일 대마도 사람 조구(調久)와의 다음과 같은 문답 내용이 그것이다.

– 어느 지역 왜인이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가?

“四州와 五幸山 등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 그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가?

“을 정월에 博多州에 가니 赤間關·薩摩州 등지의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으로서 五峯이라 일컫는 자가 賊倭를 거느리고 중국에 入寇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 너는 오봉을 보았는가?

“平戶島에서 보았습니다. 3백 여 명을 거느리고 큰 배 한 척을 타고 있었는데 늘 비단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무리가 대략 2천 명쯤 되었습니다.”

– 그가 포로가 되어 그곳에 있게 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賊이 되기 위해 들어간 것인가?

“처음에는 물화의 교역 때문에 일본에 왔다가 賊倭와 결탁하여 왕래하면서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 노략질한 것은 어느 지역 사람의 것인가?

“阿波·伊豫·讃岐·土沙 4주 사람들과 五幸山 왜인들이 무리를 지어 와서 노략질했습니다.”⁴¹⁾

‘五峯’은 왕직의 호이고 ‘五幸山’은 고토(五島)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을묘왜변 자체에 대해서는 ‘오봉’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4주와 오행산 왜인”이 노략질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고토에 근거지를 두었던 왕직의 무리가 왜인들을 데리고 중국에서 노략질을 한 뒤에 조선에서 을묘왜변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유에 응해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체포된 왕직이 명 조정에서 올린 일종의 탄원서에서

40)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9월 3일(병신)

41) 『명종실록』 18권, 명종 11년 4월 1일(기축).

왕직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舊年 四月, 敵船大小千艘余가... 深入하여 부대를 나누어 약탈을 했습니다. 다행히... 바람에 막혀 장기간 머무르게 되어 식량도 다하였습니다. 결국 本國 五島지방으로 물러나, 家屋을 제막대로 불태운 후에 서로 吞噬하여 자멸해버렸습니다. 단지 그 사이 먼저 渡海할 수 있었던 자들은 이미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餘黨들은 순풍을 타고 海上에서 흘러 다니며 南으로는 琉球를 침구하고, 北으로는 高麗를 약탈한 후, 本國 菩摩州로 돌아간 무리 또한 있었습니다.⁴²⁾

‘菩摩州’란 ‘薩摩州’를 의미하는 것으로 왕직은 중국에서의 약탈행위는 물론 조선(高麗)·류큐에 침략한 것도 ‘살마주’의 무리가 저지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舊年 4月’ 고토에 해적이 습격한 일은 사가라(相良)씨의 기록인 『八代日記』 1555년 4월 25일 조에 관련 내용이 있고⁴³⁾ 을묘왜변 직후인 6월 대마도에서 보내온 서계에 “적선(賊船) 1천여 척이 오도(吾島) 등의 섬에서도 적질을 한 다음에 90여 척이 세 무리로 나누어 떠났으니 반드시 조선으로 향했을 것이다.”⁴⁴⁾라는 내용도 동일한 사건을 말한 것 같다.

살마주의 왜구라면 이 시기 수만의 무리를 이루었던 서해(徐海)와 진동(陳東)·섭명(葉明)의 연합집단을 의미한다.⁴⁵⁾ 『주해도편』에는 이들 집단에 속한 일본인의 출신지를 ‘徐海 : 和泉·薩摩·肥前·肥後·津州·對馬, 陳東 : 肥前·筑前·豊後·和泉·博多·紀伊, 葉明 : 筑前·和泉·肥前·薩摩·紀伊·博多·豊後’이라고 하고 그 중 특히 진동의 부하에 ‘薩摩人’이 많다고 되어있다.⁴⁶⁾ 1554년 “대함대가 편성되어 가고시마(鹿兒島)를 출발(出帆)해 중국의 해안에 있는 많은 마을들이나 인구가 매우 많은 도시를 파괴했다”⁴⁷⁾는 내용도 서해집단과 관계있을 것이다. 1555년 서해는 약탈활동 뒤 음력 7월 이후(혹은 9월)에 중국을 떠났는데, 진동은 그 이전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해에 “탐라에서 도망친 살마주의 왜인”이 “내년 봄바람이 순탄할 적에 크게 병선을 출동하여 명나라를 침략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실은 귀국 탐라도에 뜻이 있는 것이다.”⁴⁸⁾라는 일종의 뜬소문이 있기도 했다.

왕직의 유명세 때문에 왕직의 이름을 사칭해 약탈이나 밀무역을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⁴⁹⁾ 『명사』 「일본전」이나 『주해도편』의 내용 중에는 엄연히 왕직과는 관계없는 일들도 왕직의 행위인 것처럼 서술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왕직 스스로의 발언을 사실로 인정해 왕직이 약탈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명종실록』의 조구가 한 말은 서해 등 ‘流逋의 入寇’를 모두

42) 采九德 撰, 『倭變事略』(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1985), 4권 附錄 (pp.98~99), “舊年四月, 賊船大小千餘, 盟誓復行深入, 分投搶擄. 幸我朝福德格天, 海神默祐, 反風阻滯, 久泊食盡, 遂劫本國五島地方, 縱燒廬舍, 自相吞噬. 但其間先得渡海者, 已至中國地方. 餘黨乘風順流海上, 南侵琉球北掠高麗, 後歸聚本國菩摩州者 尙衆.”

43) 『八代日記』(東京大学史料編纂所蔵謄写本) “(天文24년 4월) 同廿五日, 五嶋ニヲイテセキ船(関船)ト申候而, 盜船五嶋ウク(宇久)殿ノ役人ナル(奈留)殿ト云方ノ宿所悉破候て雜物取候.”

44)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6월 14일(정축).

45) 『주해도편』, 8권 「寇踪分合始末圖譜」, “乙卯丙辰之亂, 海爲之首, 陳東葉明爲之輔, 衆至數萬.”

46) 『주해도편』, 8권 「寇踪分合始末圖譜」.

47) 東京大学史料編纂所 編, 『イエズス会日本書翰集 -譯文編之2(下)』(日本関係海外史料), 東京大学史料編纂所 編纂, 2000, p.175.

48) 『명종실록』 17권, 명종 9년 12월 19일(을유).

49) 王世貞 撰, 『倭志』, 『御倭史料汇编 制1冊』, 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2004, p.8, “其姓名常借他舶, 以是凡有入掠者, 皆云直主之, 蹤跡詭秘, 未可知也.”

왕직의 짓으로 간주한 것으로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⁵⁰⁾

그렇지만, 제반 사료를 종합해 생각해보면 왕직이 약탈행위를 전혀 안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그 자신의 항변은 죽음에 몰린 왕직이 자신의 무고함을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전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고토를 공격했던 해적이 사쓰마의 적선이었다는 왕직의 주장 자체가 일단 뚜렷한 근거가 없고, 굳이 조선에의 침구를 언급한 것도 부자연스럽다. 또한 조선에의 약탈사건을 왕직이 알고 있었다는 자체가 오히려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과거 필자는 고토에 근거를 두었던 왕직의 왜구집단이 중심이 되어 을묘왜변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⁵¹⁾

그런데, 조구가 가진 정보의 출처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조구는 왜구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전했다. 첫 번째는 적왜(賊倭)가 앞으로 노략질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을묘왜변의 주모자에 대해서였다. 조구는 대마도주의 서계를 가지고 조선에 파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전래(傳來)에 따르면 동이(東夷)·서융(西戎)이 중국을 침범하고자 서해(西海)에 띄운 크고 작은 배가 수백 척인데, 그들은 은밀히 의논하기를, 「전에 중국을 노략질할 때는 패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초에 조선에 갔다가 패한 것은 대마도가 날마다 통신하여 조선에 알렸기 때문이니 지금 기계(奇計)를 내어 먼저 대마도를 치고 동이·서융의 용감한 자들을 모아 밤낮으로 조선을 노략한다면 어찌 성공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⁵²⁾라는 것이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은밀한 내용’을 대마도주가 알고 있는 것이 이상할뿐더러 대마도가 조선에 소식을 알려서 조선에서 패했다는 말은 확연한 거짓이다.

한편, 조구가 말한 노략질하려는 왜인의 정보는 하카타에서 “적간관(赤間關)·살마주(薩摩州) 등지의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했다. 오우치(大内)씨의 적간관(赤間關)은 왕직과 그다지 관계가 나뉘지 않지만, 사쓰마(薩摩)라면 얘기가 다르다. 물론 당시 왜구에 참가한 사람들의 출신지는 다양했고 특정지역의 사람들이 꼭 어느 한 집단에만 속해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쓰마는 왜구의 출신지 중 대표적인 곳이었고⁵³⁾ 과거 왕직의 밀무역활동과도 깊은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쓰마라면 아무래도 왕직 집단과는 라이벌 혹은 적대관계에 있던 서해 집단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에 정보의 출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때는 왕직의 초무를 위해 일본에 파견되었던 장주(蔣洲)와 왕직 사이에 호시(互市)를 조건으로 한 협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1555년 음력 11월 장주와 만났을 때 왕직은 자신이 도적이 아니라며 약탈행위를 극구 부인했는데,⁵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조선으로의 약탈을 계획했을 리 없다. 조구가 말한 첫 번째 정보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두 번째의 을묘왜변을 일으킨 것이 ‘오행산과 4주의 왜인’이라는 정보의 출처도 첫 번째와 같다면 역시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4주’, 즉 시코쿠를 거론한 부분이 이상하다. 세토나이카이의 무라카미(村上)씨를 비롯한 시코쿠의 해상세력이 왜구에 참여했다고 일컬어지기는 하지만 왕직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역시 규슈(九州)의 여러 지역이었다.

50) 李獻璋, 「嘉靖年間における浙海の私商及び船主王直行蹟考(下) : 海禁下に自由を求め一私商の生涯」, 『史学』 34-2, 三田史学会, 1961. pp.80~82.

51) 윤성익, 「『後倭寇』로서의 乙卯倭變」, 『한일관계사연구』 24, 2006.

52)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2월 30일(기미)

53) 王世貞 撰, 「倭志」, 『御倭史料汇编 制1冊』, 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2004, pp.11~12, “前此入寇者, 多薩摩·肥後·長門三州之人, 其次則大隅·竺前·竺後·博多·日向·攝摩·津州·紀伊·種島, 而豐前·豐後·和泉之人亦間有之. 蓋因商於薩摩而附行者, 蓋日本之民, 有貧·有富·有淑·有愚, 富而淑者, 或附貢舶, 或因商舶而來. 其在寇舶, 率皆貧而惡.”

54) 『주해도편』 권9, 「大捷考」 ‘擒獲王直’(嘉靖三十六年十一月).

그런데, 을묘왜변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1555년 말 조선에 전해진 적이 있었다. 「일본국(日本國) 서해로(西海路) 상송포(上松浦) 당진태수(唐津太守) 원승(源勝)」 명의의 서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년에 우리나라의 도적이 명나라에 가서 죄를 저질러, 여러 사람을 죽이고는 진귀한 물건을 탈취하였는데, 그 적선에 몇 사람이 타고 있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60여 주(州) 가운데 사주(四州)가 있는데 이 사주의 적당(賊黨)은 우리나라(我邦)에도 왕래하는 장삿배로 죄를 저지르는 일이 예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임금(我大王)도 그들을 막기 어려우니 진실로 방외(方外)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금년 봄에 명나라로 가려는 적선 1백 척이 서해(西海)의 오도(五島)에 도착해서는 포구와 나루마다 널려 있으면서 강약(強弱)을 엿보아 죄를 저질렀는데 그 밖의 적선이 도합 1천여 척이나 됩니다... 그 중에 사주의 적 70여 선이 조선으로 나가려고 하므로, 오도태수(五島太守)가 우리 임금에게 아뢰었더니 우리 임금이 크게 노하여... 군사들이 명을 받들고 봄부터 돌아오는 배를 기다렸더니 지난 7월 하순에 귀국(歸國)하던 배가 큰 바람의 환난(患難)을 만나 더러는 넓은 바다 속에 침몰되고 더러는 여러 섬으로 표류하여 물과 식량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신이 지키고 있는 당진(唐津)에도 1척이 표류해 왔는데 거기에는 7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30여 명은 목을 베고 30여명은 바다에 빠뜨려 죽였으며 배는 태워 버렸는데, 신의 용감한 군사 10여 명이 전사하였으니 몹시 애석합니다... 신이 지키는 당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평호도(平戶島)에 1척, 대도(大島)에 1척, 대마도(對馬島)에 1척 등 도합 1백여 명의 목을 베고 그 나머지는 바닷 속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왕이 크게 충성스럽게 여겨 벼슬을 내리고 녹(祿)을 받게 하였습니다. 신이 죽인 자 중에 병부(兵符)를 목에 건 자가 있었는데, 이 부신이 무슨 맹서에 쓰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틀림없이 귀국에서 쓰는 데가 있는 것인 듯합니다... 조선에서 전사한 자들을 따르는 무리와 친족이 사주의 일당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건너가서 지난날의 치욕을 씻겠다고 하므로 우리 왕은 크게 노하여 서해로(西海路)의 포변에 대해서도 엄히 방어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군사들의 노고를 언급하여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자(呼子)에 사는 성만(盛滿)⁵⁵⁾을 이웃에 사는 정의로써 당진에 달려가게 하여 귀국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군사를 재촉하여 한 번 싸워 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편에 병부만을 보내고 그 밖의 귀국의 활과 화살 및 토산물은 비록 많다 하더라도 모두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다... 가을에 명나라에 가려는 적선이 많았는데, 내년 봄에는 또 귀국에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곽을 지켜 태평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⁵⁶⁾

당진태수(唐津太守) 원승(源勝)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가라쓰의 영주는 가미마쓰라(上松浦)의 영수였던 하타(波多)씨로 1471년 이키를 점령하는 등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런데 16대 당주 하타 사코(波多 盛)가 후계자 없이 1547년 급사하면서 후계권을 두고 내분이 일어나 1555년은 권력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시마바라(島原)의 아리마(有馬)씨로부터 양자로 맞아들여져 17대 당주가 되었던 하타 치카시(波多親)는 1557년이 되어서야 입국했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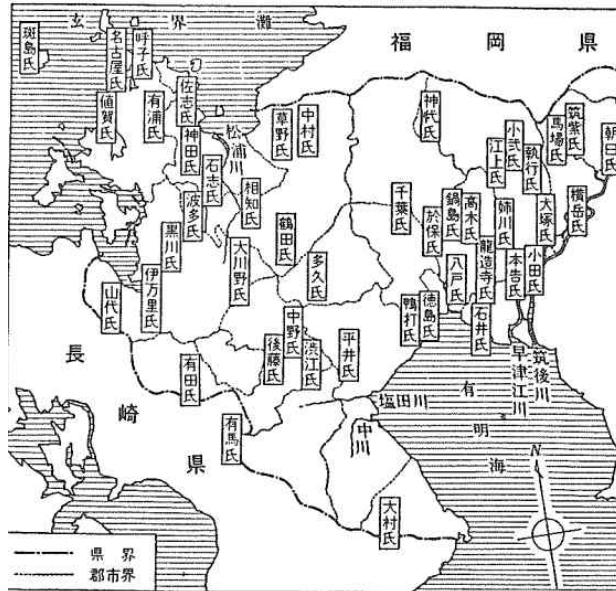
하타씨는 조선과 통교했을 때 ‘파다도(波多島)’의 명의를 사용했고 그 외 마쓰라토(松浦党)의 세력들도 각각 자신들의 영지명을 사용했었다. ‘당진태수(唐津太守)’는 『실록』 전체에서 위의

55) 원문은 “知于茲呼子之住, 盛滿以隣里之好”. 『국역 조선왕조실록』에는 “아들 성만(盛滿)을 불러”라고 되어 있지만, ‘呼子(よぶこ)’는 가라쓰(唐津) 북쪽의 해안 지역으로 남북조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 요부코(呼子)씨가 지배했다.

56)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12월 7일(정유)

57) 玄海町史編纂委員會 編, 『玄海町史 上卷』, 佐賀県玄海町教育委員会, 1988, 「後期波多氏の時代」 pp.634~639.

기사가 유일하다. 조선은 원승의 공적을 인정해 도서(圖書)를 주었는데⁵⁸⁾ 그 이후에는 원승에 대한 기록이 없다. 한편 그가 파견했다는 원성만(源盛滿)은 이후 1558년(명종 13)까지 매년 조선에 와서 왜구의 침공 위협을 알리곤 했다. 원승의 서계 내용에서 원성만은 요부코(呼子)에 거주했던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의 인물인지 불확실하다. 요부코의 지배자는 요부코(呼子)씨였고 이들이 조선과 통교했을 때는 역시 '呼子'를 명의로 사용했었다. 그런데 원성만이 '대마도의 왜인'⁵⁹⁾이었다는 것을 보면 '당진태수(唐津太守) 원승(源勝)'을 빙자한 일종의 위사(偉使)가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든다.⁶⁰⁾



<天文・永録 무렵 히젠의 할거도>(출전:
『佐賀の歴史』(1972))

여하튼 서계 내용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이들이 달랑왜변의 왜구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들이 돌려보면 병부(兵符:發兵符)는 달랑성에서 원적(元績)이 패사(敗死)했을 때 잃어버린 57개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완벽한 증거가 된다. 다만, 조선조정에서도 의심했던 것처럼 그것을 입수한 경로가 원승의 말 그대로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의 말로는 풍랑으로 표류해온 배를 공격했다는 것인데, 가라쓰(唐津) 외에 히라도(平戸)·오시마(大島)·쓰시마(對馬)에 각각 1척씩 표류했다고 함으로 총 4척이 된다. 그런데 앞선 8월 대마도에서는 “7월 26일 적선 4척이 서해에서 와서 대마도로 통과하므로 도주가 배를 출동시켜 1척을 추격, 왜인 25명의 목을 베었다”며 ‘嘉靖乙卯三月日羅州所納兵營上’이 써 있는 우산과 머리를 보내왔다.⁶¹⁾ 시기와 선박의 총 수는 원승의 서계와 일치한다.

그런데, 음력 7월 말에 태풍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달랑왜변이나 제주왜변을 일으켰던 왜구의 선박이 그 때까지 계속해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른 목적의 항해, 예를 들면 고토 등 일본의 집결지에서 그들의 본래 근거지로 회항하던 중이었을

58)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12월 15일(을사)

59) 『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 2월 11일(기축)

60) 金炳夏, 「乙卯倭變考」(『耽羅文化』 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9, p.102)에서는 “대마도주가 원승의 이름으로 서계를 보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61)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8월 12일(갑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요부코(呼子)나 가라쓰(唐津)도 왜구들의 근거지로 생각되던 곳들이었다. 가라쓰(唐津)에서 보낸 증거는 병부뿐이었으니 조선조정의 의심처럼 표류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목을 베어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원승의 서계에는 더 따져볼 내용도 많지만, 일단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조선을 침공했던 왜구에 대해 고토(五島)에서는 출발했지만 고토와는 무관한 사주(四州)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조구의 증언과 같이 고토와 사주가 등장하면서도 ‘오도태수(五島太守)’를 등장시키며 고토와의 관련성은 부정했다. 원승과 오도태수, 즉 우쿠 스미사다(宇久純定)⁶²⁾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원승은 고토 및 우쿠씨가 이와 무관하며 오히려 일본국왕(我大王)과 원승(당진태수)·오도태수는 적극적으로 왜구를 방지하고 토벌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조선에 통교권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조선전기에 일본의 여러 사람들이 왜구의 금압을 공적으로 내세우며 조선에 통교를 요청해왔던 것과 꼭 닮아있다. 조금 다른 점은 왜구의 구성원이 자신의 통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사주의 주민들이었다는 주장이다. 가라쓰와 동일한 왜구의 선단을 추격·토벌했다는 쓰시마에서는 8월에 관련 소식을 전할 때 누가 왜구였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이나 지난 뒤에서야 갑자기, 그것도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인물이 왜변이 사주(四州) 사람들만의 행위였다고 꼭 잡아 지목한 것은 역시 일종의 책임전가였다고 보인다. 고토에 근거를 두었던 중국인들이 여러 왜인을 이끌고 노략질에 나섰던 것이기 때문에 ‘오도의 왜인’과는 무관했을 지도 모르지만, 중국에서의 왜구상황을 고려하면 고토 자체가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⁶³⁾

2) 왜 했을까? 왜 두 번은 없었을까?

후기왜구가 중국에서의 밀무역, 혹은 약탈의 주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비단·도자기와 같은 고가품이나 화약의 원료였던 초석(硝石) 등이었다. 일본에서 귀중했던 이들 물건을 일본으로 가져가 대량으로 채굴되던 은(銀)과 교환하고 다시 은을 중국으로 가져가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목적이 후기왜구 활동의 동인이었다는 것에 큰 이의는 없을 것이다.

달랑왜변도 약탈이라는 면에서는 중국대륙에서의 왜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약탈을 통해 그들이 모종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침구의 이유 또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보통 이야기되는 왜구가 좋아하던 중국의 물건들을 조선에서는 얻기 어려웠다. 달랑왜변에서 약탈해간 물건들은 주로 군량(軍糧)과 병장기(兵仗器)들이었다.⁶⁴⁾ 물론 민가도 약탈해 재물들을 약탈해갔으므로⁶⁵⁾ 그 외의 물건들도 약탈의 대상이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군량이다. 포로가 되었던 이덕견(李德堅)이 풀려나면서 가져온 왜구의 서계에는 군량 30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⁶⁶⁾

62) 참고로 15세기말부터 16세기 초에 조선과 빈번히 통교했던 ‘五島の源勝’은 13대 宇久 勝(大和守)이다.

63)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3월 22일(신사)에는 “왜인의 서계에는 늘 ‘五島の 왜인들이 노략질을 했다’고 말한다.”(倭人書契, 每以爲 ‘五島之倭作賊’ 云)는 문구가 있지만, 조구의 말 이외에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찾을 수 없다.

64)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26일(기미), 5월 28일(신유), 5월 30일(계해), 6월 8일(신미), 8월 19일(신사).

65)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30일(계해)

66)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9일(임자)

30석은 당시 전황(戰況)을 생각하면 요구액 치고는 너무 적게 느껴진다.⁶⁷⁾ 달랑왜변 때 왜구의 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선박의 수가 70여 척이었다면 적어도 제주왜변의 1,000여명 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30척이라면 1,000명이 10일 정도면 소비할 양이다. 2,000명 이상의 왜구집단이었다면 퇴각해 일본으로 항해할 때 소비할 정도밖에는 안 된다. 왜구들은 여러 지역에서 더 많은 식량을 약탈했겠지만, 만약 이 30척이 당초 왜구들의 핵심 목표였다면 달랑왜변도 제주왜변과 비슷한 목적·이유에서 감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중국대륙의 왜구는 극성을 보인 반면 명군(明軍)에게 큰 타격을 입던 때이기도 했다. 명군의 공세에 왜구들은 바다로 나가 도망치기도 했지만 명군의 추격을 받아 바다에서도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⁶⁸⁾ 달랑왜변과 제주왜변의 왜구들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중이었지만, 이런 중국에서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들이 모두 약탈한(혹은 밀무역으로 거래한) 물품을 배에 가득 싣고 귀환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중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조선을 약탈할 목적으로 항로를 잡았다면 불만족스러운 중국에서의 결과를 조선에서 해소할 목적이었을 것이다.

달랑왜변이나 제주왜변이 예측 못한 상황에서의 돌발적인 결정이었는지 혹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진 침공이었는지 확실한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 한번이외에는 동일한 행동이 되풀이 되지 않았다. 했던 이유 이상으로 다시 하지 않은 이유도 의문투성이이다. 중국에서의 상황을 생각하면 한 번의 패전으로 좌절해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고는 설명할 수 없다.⁶⁹⁾

다시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들을 종합한 추정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는 조선에서의 약탈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일 수 있다. 일종의 동일한 기회비용에 대해 조선에서의 약탈품은 왜구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왜구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 을묘왜변이후 조선에서 왜선이 정박하고 상륙해 식량을 약탈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은 가정왜구가 거의 종말을 맞이하던 1564년(명종 19)이었다.⁷⁰⁾ 1557년경부터 왜구의 주 활동지역이 복건(福建)으로 변화하면서 항로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이유는 되겠지만, 하지 않았던 다른 요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의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을묘왜변 이후 왜구들에게 ‘하지 말라’는 외부의 압력 내지는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구와 일본의 지방 세력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다. ‘당진태수’가 실재하고 고토나 히라도와도 관련 있는 인물이라면 조선으로부터의 통교권 획득과 이후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조선으로의 왜구활동에 자속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 전기의 왜구를 이용해 통교권을 획득·유지했던 것과 같은 유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을묘왜변을 이용해 통교권을 획득하려는 다른 시도도 있었다. 1556년(명종 11) 겨울 유황도(硫黃島) 태수 칙충(則忠)이 그 해 4월 적선 한 척을 만났는데(得逢賊船一隻) 그 배에 실린 무기가 모두 조선의 물건이었다면서, 도서(圖書)를 준다면 적선이 조선에 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내용의 서계와 조선의 활과 화살 등을 보내왔다.⁷¹⁾ 조선에서는 유황도(硫黃島)를 사주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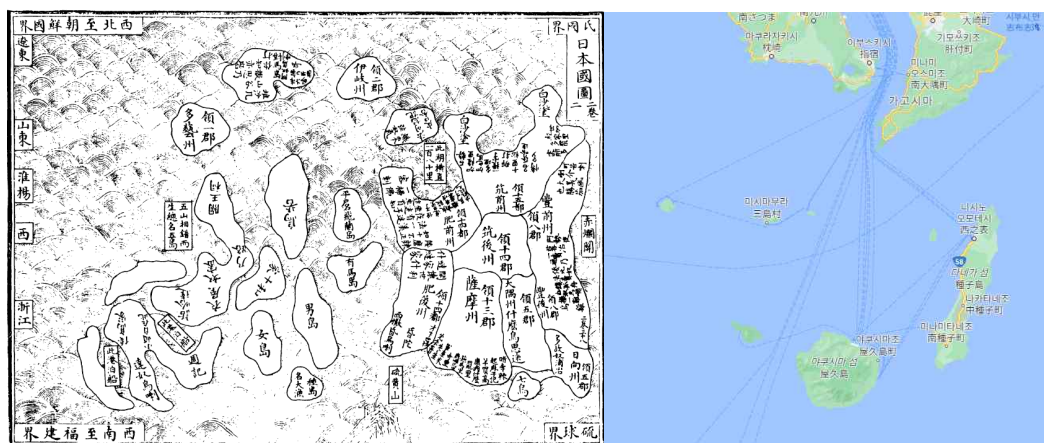
67) 5월 28일 가리포에서 군량 100석을 빼앗겼다고 하고(『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8월 19일(신사) 조구는 을묘왜변의 정보 및 왜구 침공의 보고만으로도 30석을 받았다.(『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4월 18일(병오))

68) 『명 세종실록』 421권, 가정 34년 4월 27일, 5월 21일, 6월 11일, 7월 21일, 8월 9일, 윤11월 8일.

69) 金炳夏, 「乙卯倭變考」, 『耽羅文化』 8, 1989, p.103에서는 제주대첩에서 “대승함으로써 왜구의 창궐을 종식 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70)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5월 18일(기미).

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쓰마의 권역이다. 항로상으로는 중국에서 규슈남부로 올 경우 이 섬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시코쿠나 규슈 동부, 특히 오토모(大友)씨의 거점인 후나이(府内)로 이어졌고 북상하면 고토 등 규슈 서부로 가는 그야말로 길목에 있었다.



칙중의 요구를 조선조정에서는 거절했는데 6년이 지난 뒤 이번에는 을묘왜변 때 약탈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병서(兵書)를 보내며 다시금 도서를 요청했다.⁷²⁾ 두 번째 요청도 조선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3년 뒤인 1565년(명종 20) 12월에 또 다시 도서를 요청해왔다.⁷³⁾ 물론 이번에도 조선은 거절했다. 사신(史臣)은 이 일에 대해 “병기와 병서가 본시 우리의 것이었다면, 전일에 도적질하였던 자들이 유황도인(硫黃島人)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일 도적질해 간 물건을 가지고 오늘 와서 공로를 요구하는 자로 삼으니, 조정을 우습게보며 업신여김이 심하다 하겠다.”고 논했는데 이 말이 맞을 수 있다. 혹은 처음 요구해왔을 때 예조의 의견처럼 “지난 해 도둑질하고 돌아가는 배에 우리나라의 병기 등의 물건을 여러 섬의 왜주(倭酋)들이 나누어 감추었다가 서로 잇달아 와서 바치면서 자신들이 여러 적왜에게 빼앗았다며 중상(重賞)을 바라는 것”⁷⁴⁾일 수도 있다.

을묘왜변의 일을 빌미로 10년 뒤까지도 끈질기게 요구할 정도로 조선의 도서는 큰 가치가 있었다. 도서의 획득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의 왜구사건은 곤란했을 것이다. 명과는 달리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평화적인 무역이 가능했다. 1564년(명종 19) 사관원은 다음과 같은 당시 실정을 말하고 있다.

왜구들이 해로(海路)를 통해 상국(上國)을 노략질한 뒤면 명주(明珠)·보패(寶貝)·진기한 비단(珍錦繡)·금은(金銀) 등이 모두 부산포(釜山浦)에 모입니다. 때문에 수령이나 변방의 장수 및 장사치들까지도 쌀이나 베를 수레에 싣거나 몸에 지고서 끊임없이 부산포(本鎭)로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다른 도(他道)의 수령들까지도 배로 운반해 오거나 육지로 수송해 와서 물화(物貨)를 교역하여, 남녘 백성들의 명맥을 모두 왜구의 손아귀에 들게 합니다.⁷⁵⁾

71)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12월 2일(정해).

72) 『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11월 5일(을유).

73)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12월 27일(경인).

74)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12월 2일(정해).

75)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10월 23일(임진).

이처럼 중국에서 왜구가 약탈한 물건은 조선에서 다시 고가로 거래되었다. 일본에서 필요로 했던 조선의 물건은 굳이 위험성이 큰 해적행위가 아니었어도 획득 가능했던 것이다.

5. 결론

1556년(명종 11) 음력 4월, 왜인 안국(安國)이 요시지(要時知)를 보내 7~8세의 어린아이를 쇄환했다.⁷⁶⁾ 조선 초에 포로의 쇄환이 조선과의 통교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를 조사해보니 ‘중국어를 조금 이해하고, 왜어를 능숙히 구사했는데’⁷⁷⁾ 조선어는 알지 못했던 것 같다.⁷⁸⁾ 이 때문에 조선조정에서는 이 아이가 조선의 아이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도 했는데, 사간원에서는 이에 대해 “말하는 이들이 ‘연해의 포작간(鮑作干)들이 변장(邊將)의 침탈(侵奪)에 견디다 못해 왜인에게로 들어가는 것으로 침탈을 피하는 방법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장차 저 왜 땅에서 자손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왜어만을 아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지난해 변방 백성이 처음으로 왜인에게 잡혀갔고 그 전에는 한 사람도 그곳에 잡혀간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⁷⁹⁾라며 조선아이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일을 처리하도록 간했다.

안국(安國)이라는 사람은 정체가 불분명해서 조선조정에서는 그가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는데, 그가 보냈던 요시지(要時知)는 장차 나이든 여인[壯女]도 쇄환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뒤에는 전혀 기록이 없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데, 아이가 조선인이었든 왜인이었든 7~8세라는 나이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던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이 흥미롭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혼합된 집단인 후기왜구가 아이의 삶의 배경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간원의 말처럼 왜인의 땅에 스스로 들어간 사람은 아닐지라도 왜구의 근거지였던 고토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⁸⁰⁾

달랑왜변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풀려난 이덕견은 왜구 중에 “우리나라 말을 조금 이해하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⁸¹⁾ 능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아 조선인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조선 조정에서도 그 사람은 조선과 자주 왕래하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조선어를 익혔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작 이덕견은 왜구집단에 다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인에 대한 목격담 같은 것은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이덕견이 결국 참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후일담을 남길 수 없었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증언이 없는 채로 달랑왜변의 왜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이덕견이 들고 온 서계에서 사용된 단어를 가장 큰 단서로 삼고 당시 중국에서의 왜구상황을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다.

『명종실록』은 왜구에 대한 꽤 많은 정보를 전해준다. 그렇지만 왜구 자체에 대한 내용의 대

76)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4월 18일(병오).

77)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5월 8일(을축).

78)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5월 14일(신미).

79)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5월 14일(신미).

80)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17일(병인).

林梯의 『南溟小乘』(1577년 11월부터 4개월간의 제주도 여행기)에는 사공 德曄의 사연이 짧게 소개되어있는데, 그는 일찍이 왜구에게 끌려가 7년 동안 五島에서 살다가 작은 배를 얻어 타고 고국(제주도?)으로 돌아왔다고 한다.(윤성익, 「설화를 통해 본 '제주도의 왜구」, 『도서문화』 56, 2020, pp.442~445)

81)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9일(임자).

부분은 외부로부터의, 게다가 출처도 불분명한 간접정보이거나 추측에 의거한 것들이다. 사건에 대한 기록도 그다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제주왜변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 상륙했던 왜구도 중국인이 포함된 전형적인 후기왜구의 집단이었다는 사료적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왜장이 홍모두구(紅毛頭具)를 썼다는 것뿐이다. 홍모두구(紅毛頭具)가 명의 장령들이 착용했던 투구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홍모두구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 투구를 쓰고 있었다고 그 왜장이 중국인이었는지도 사실 알 수 없다. 이 역시 정황에 근거한 추측일 뿐이다.

달랑왜변을 일으켰던 왜구가 제주도로 건너와 제주왜변 및 제주대첩이 일어났다는 기존의 견해는 ‘항구적인 왜구의 침략성’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너무나도 막연한 추측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후기왜구라는 시점에서 가능한 많은 증거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황증거를 통한 추정으로 대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필자 스스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많은 문제 및 논란거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이를 통해 최소한 을묘왜변-제주대첩에 대한 이해 및 후기왜구와 한반도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토론문】

「1555년 을묘왜변 제주대첩에 관하여」(윤성익)에 대한 토론문

조혜란(한국방송통신대)

본 논문은 을묘왜변 제주대첩과 관련된 여러 의문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에 관한 사료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명종실록』 외 「운주당기문」 『남사록』 『탐라지』 『대동야승』 『남환박물』 『연려실기술』 『증보탐라지』 등 여러 문헌자료를 비롯하여, 당시 중국·조선·일본 3국의 정세를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을묘왜변은 가정연간(1522~1566)에 발생한 것으로 이 시기에는 황당선(정체불명의 외국 선박)이 한반도에 출몰하였는데, 이것이 을묘왜변의 원인이 됩니다. 을묘왜변이 발생하기 직전인 1553년 시점은 왜구가 급증한 시점이며, 1555년은 중국에서 왜구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발표자는 2006년 「『後期倭寇』로서의 乙卯倭變」이라는 논문에서 “고토(五島)에 근거를 두었던 왕직의 왜구집단이 중심이 되어” 을묘왜변을 일으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 후속 연구입니다. 제주 을묘왜변 관련사료 간 내용상의 모순과 제주대첩에서의 의문점, 그리고 후기왜구로서 을묘왜변의 특수성에 관해 검토한 매우 소중한 연구입니다.

제가 이해한 논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주 을묘왜변은 왜구가 6월 27일 제주에 상륙하여 3일 후인 29일에 승전, 전투기간이 3일간이었으며, 승전 양상은 성이 포위당한 뒤 적이 물러날 때를 기다렸다가 추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달랑왜변과 제주왜변을 일으킨 왜구는 동일집단이 아니었으며, 달랑왜변에서 약탈해간 물건은 주로 군량미와 병장기였고, 제주에서는 식량과 식수를 구하기 위해 약탈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후기 왜구는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것이 특성입니다. 따라서 후기 왜구로 분류되는 을묘왜변을 일으킨 왜구는 고토(五島)를 근거지로 삼았던 중국인 왕직이 주도하였고 여기에 일본인 왜구가 합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을묘왜변 이후 다시 약탈을 하지 않은 것은 외부의 압력(왜구금압)이 작용한 것으로 발표자는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 『명종실록』 명종 11년(1556년) 4월 1일 사료를 통해 왕직이 을묘왜변을 주도하였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사료 내용 중 대마도 사람 조구(調久)와의 문답에서 “어느 지역 왜인이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四州와 五幸山 등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대목에서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예조에서 미래형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을묘왜변은 명종 10년(1555년)에 발생했는데 어떻게 왕직과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2. ‘원승의 서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사’에 관한 연구는 일본 연구자들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승이 위사였다는 연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달랑왜변과 제주왜변을 일으킨 왜구는 동일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사료를 근거로 하여 시공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구는 결당조직이며 이합집산에 능한 것이 특징임을 감안한다면, 혹시 동일집단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2발표

내선융화구락부」에서 골프구락부로 -식민지기 「고급사교구락부」의 문화접변-

발표 : 김동명(국민대학교)

토론 : 현명철(서울대학교)

한일관계사학회 제209회 월례발표회, 2023.11.11, 한성백제박물관

「내선융화구락부」에서 골프구락부로

-식민지기 「고급사교구락부」의 문화접변-

김동명(국민대)

1. 머리말

조선 안에 고관과 일류명사들만을 멤버로 한 고급사교구락부로 한상룡씨를 중심으로 한 조선실업구락부 윤치호씨를 중심으로 한 계명구락부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세인의 흥미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왕전하를 명예총재로 추대한 경성골프구락부일 것이다. 그 구락부의 위원과 회원을 알아보면 이왕전하 이하 조선총독부 고관은 물론 서울 안에 있는 일류명사와 지방에 있는 대재벌과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영미인은 거지반 멤버로 되어 있다.¹⁾

이글은 일본제국주의(이하 일제) 지배하 식민지 조선에서 골프가 전파, 수용, 정착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고급사교구락부」의 문화접변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구락부(俱樂部)는 개항 이후 서구에서 들어온 문화요소인 클럽(club)을 한자음으로 옮긴 것으로 친목회, 협회, 회 등으로도 번역되었으며 취미, 친목, 오락, 사교, 정치, 예술, 종교, 문화, 스포츠 등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모임이나 그 구성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일컫는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의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등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근대적 국제관계에 본격 편입했다. 이후 국제법과 외교관행에 따라 외국공관이 설치되고 외교관을 비롯한 관료, 선교사, 상인 등의 외국인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구락부를 결성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조선인도 구락부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락부도 생겨났다.

이후 일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그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이 강해지자 일제는 정치적 성격을 띤 단체(결사)를 모두 해산하고 정치에 관한 집회나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²⁾ 그러나 일제는 병합 이후 이른바 무단정치기로 불리는 1910

* 국민대학교 교수

1) 김동환, 「서울의 上流社會, 入會金만 三百圓 드는 골프場」, 『삼천리』, 제10권 제1호, 1938년 1월, 31쪽(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 한규무, 「1910년대 계몽운동계열 비밀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통권 8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년, 10-20쪽 참조.

년대에도 지배의 안정을 위해 비록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지배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세력에 한해 결사 활동을 허용했다. 그것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는 「고급사교구락부」이다. 「고급사교구락부」는 주로 조선의 상층자본가들이 일제의 지배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총독부 고관들과의 친교를 유지하면서 사교하는 모임으로 1910년대를 대표하는 「고급사교구락부」는 대정(大正)구락부와 대정친목회와 같은 「내선융화(內鮮融和)구락부」이다.

「내선융화구락부」는 조선인 상층자본가들과 일본에서 조선에 건너와 거주하는 일본인(이하 재조일본인) 중에서 일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당시 총독부가 지배목표로 설정한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동화를 실현하는 데 내선융화를 표방하고 적극 협력한 정치적 성격의 「고급사교구락부」이다. 그들은 서로 회사의 대주주와 중역을 겸임하고 각 지역의 주요 공직도 맡으면서 지배권력과 유대를 통해 강력한 인적 관계를 구축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였고 일제는 그들을 정치 경제적 지렛대로 삼아 지배의 안정을 도모했다.³⁾

이후 일제가 1919년 3·1운동의 충격을 받아 소위 문화정치로 전환하면서 제한적이지만 정치적 결사와 집회를 허용하자 다양한 종류의 구락부들이 생겨났는데 모두의 인용문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대표적인 「고급사교구락부」 중 하나가 바로 경성골프구락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골프는 15, 16세기경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어 17, 18세기를 거치면서 골프구락부가 조직되고 골프 규칙이 만들어졌으며 골프장과 골프채, 골프공 등의 골프 도구가 규격화되면서 근대스포츠 형식으로 발전해 널리 보급되었다. 이후 19세기에 이르러 골프는 영국 전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비롯해 미국으로 이어 20세기 초에는 일본과 중국 등으로 퍼져나갔다.⁴⁾ 그리고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도 전파되어 정착되어갔다.

이 글은 이처럼 식민지기 「고급사교구락부」가 1910년대의 정치적인 성격의 「내선융화구락부」에서 1920년대 이후 스포츠 성격의 골프구락부로 변해가는 과정을 히라노 겐이치로(平野健一郎)가 『국제문화론』에서 제시한 「문화접변 과정」을 채용해서 분석했다. 문화접변(acculturation)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집단이 지속적인 직접 접촉을 행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집단의 원래의 문화 형태에 변화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다.⁵⁾ 한편 제국주의의 지배에 있는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문화접변은 강제적인 접촉상황에서 일어난다. 이 때문에 식민지 주민은 지배권력의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받아 완전히 다른 문화요소도 일단 받아들여게 된다. 그러나 강제적 접촉상황에서도 비강제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논리에 따라 문화접변이 행해진다.⁶⁾

3) 김경남, 「일제강점 초기 자본가 중역겸임제에 의한 정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한일관계사연구』 제48집, 한일관계사학회, 2014년, 257-258쪽 참조.

4) 사단법인 대한골프협회, 『한국골프 100년 1900~2000』, 비매품, 2001년(이하, 『한국골프 100년』), 37-61쪽.

5)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XXXVIII(1936), pp. 149-152; 平野健一郎, 『國際文化論』(장인성·김동명 역, 『국제문화론』, 풀빛, 2004년, 85-87쪽) 참조.

6) 최길성 편, 『일제시대 한 어촌의 문화변용』, 상, 아세아문화사, 1992년, 52-53쪽; 이병원, 「식민지 시기의

문화접변과정은 히라노에 의하면 하나의 문화가 구평형(舊平衡) 상태에서 신평형(新平衡)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우선 구평형 상태에서 부분적인 해체가 일어나면 다음에 외래문화요소가 전파·제시되어 필터와 선택을 거쳐 수용된다. 이어 문화적 저항에 직면하며 문화요소의 재해석과 문화의 재구성을 통해 신평형에 다다른다. 문화는 늘 고정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어느 부분에선가 변화가 발생하지만 대체로 전체로서의 안정 상태는 유지한다. 과도하게 문화가 안정성을 잃으면 인간 생활을 지탱한다는 문화의 의의 그 자체가 없어지므로 문화 내부에서 새로운 안정=평형상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이다.⁷⁾

지금까지 식민지기 골프구락부를 포함한 골프에 관해서는 주로 체육학 분야에서 손환, 조상우 등에 의해 많은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 골프의 전파(도입), 수용(보급), 정착(발전)의 양상에 관한 귀중한 사실들을 발굴해서 축적해왔다.⁸⁾ 이들 기존 연구는 비록 이 글처럼 히라노의 「문화접변의 과정」을 구사하여 분석하지 않았지만 골프라는 문화요소가 계속 변화해왔으며 그 변화는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접촉상황인 식민지에서도 문화의 논리에 따라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종래의 연구로부터 힘입은 바 매우 크다. 다만 이 글은 식민지기에 일어난 골프의 문화적 측면, 즉 문화란 인간의 「살아가기 위한 고안」⁹⁾이라는 면에서 당시 왜 조선에서 골프가 필요했으며 골프를 친 사람들에게 골프는 어떠한 의미를 가졌었는지 등에 좀 더 주목했다. 이를 위해 「문화접변의 과정」을 구사해 종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골퍼들의 경력을 비롯해 정치사회적 배경들을 밝혔다. 또한 문화적 저항의 구체적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문화변화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골프의 문화접변 과정을 전망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식민지기 골프구락부의 문화접변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클럽, 공, 복장 등의 용구, 골프장, 골프 규칙, 골프대회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필자의 능력과 자료, 지면 등의 한계상 주로 골프구락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또한 지역적으로 경성의 골프구락부에 한정했다. 그리고 조선, 조선인, 경성, 이왕(영친왕) 등 당시의 용어는 그대로 사용했으며, 골프의 경

음악적 문화변용: 총체적, 비판적 시각으로 본 견해, 『동양음악』, Vol. 27,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5년, 16-17쪽;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83, 110-111쪽 등 참조.

7)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88-90쪽.

8) 손환, 『한국 골프의 탄생』, 민속원, 2021년(이하, 『골프의 탄생』); 조상우, 「영친왕의 골프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ol.37, No.4,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2020년(이하 「영친왕의 골프 활동」); 조상우, 「일제강점기 골프구락부의 성립과 조선골프연맹의 창립 및 활동」, 『골프연구』, 제9권 제3호, 한국골프학회, 2015년; 조상우·신용호·곽성연, 「일제강점기 경성골프사」,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5호, 한국체육학회, 2013년; 조상우·정동구, 「한국 골프코스 도입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1권 제5호, 한국체육학회, 2012년; 조상우·강승애·곽성연, 「원산의 골프 도입과 발달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6권 제4호, 한국여성체육학회, 2012년; 김현경·곽형기, 「일제강점기 골프에 대한 신문기사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4권 제3호, 한국체육사학회, 2009년; 이가람·최흥희, 「그들만의 리그, 한국 골프 도입의 역사적 배경」, 『골프연구』, 제16권 제3호, 2022년 등.

9)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30쪽.

우 당시 골푸, 꼴푸, 꼴프 등으로 골프장의 경우 골프코스 또는 골프링크(스)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각각 골프와 골프장으로 통일했다. 인물의 경력 등은 주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를 이용했는데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의미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려운 고어는 알기 쉬운 현대어로 바꾸었음을 미리 알려둔다.

2. 「내선융화구락부」의 동요

1910년대 「고급사교구락부」를 대표하는 「내선융화구락부」는 3·1운동을 전후해 동요하기 시작했다. 구평형을 이루었던 「내선융화구락부」의 부분적인 해체가 일어난 것이다. 문화는 구평형 상태에서 전체로서는 안정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늘 어딘가에서 변화가 발생하며 부분적인 해체가 개시되면 구평형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문화의 부분적인 해체는 문화의 어떤 부분에 존재하는 문화요소가 기존의 방식 그대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생겨난다. 만약 부분적인 해체를 멈출 수 없게 되면 그 문화는 결국 해체되므로 문화의 해체를 저지하려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다.¹⁰⁾

1)구평형: 「내선융화구락부」

구평형은 1910년대에 활동한 「고급사교구락부」인 대정구락부와 대정친목회 등의 「내선융화구락부」이다. 우선 대정구락부는 1914년 조선인 귀족과 「총독부 고등관 및 민간 유력인사」 등 일본인과 조선인이 「단합」하여 설립한 사교단체이다. 이 구락부는 귀족회관에 본부를 두고 회원들의 교류를 위해 유희실, 신문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¹¹⁾ 자세한 대정구락부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구락부 본부가 귀족회관에 있었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귀족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따라서 조선귀족회 활동을 통해 대정구락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조선귀족회는 1911년 9월 일제의 「조선귀족령」에 의해 임명된 일부 귀족들이 「번병(藩屏, 황실의 수호자)이 되어 충의를 다하며 품성을 도야하여 사민(四民, 평민)의 모범이 되게 하고 상호 간의 지식을 교환하며 환난을 구제」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임원에는 회장 후작 박영효, 부회장 자작 민영휘, 후작이사 윤택영, 백작이사 이완용, 자작이사 조중응, 남작이사 김종한·장석주 등이 선임되었다.¹²⁾

이후 조선귀족회는 일본 황실의 주요 행사에 귀족대표단을 파견하고 조선에 온 일본실업시찰단을 환영하는 등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교류를 통해 내선융화에 앞장섰다.

10)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90-91쪽.

11) 『매일신보』, 1914년 6월 24일, 11월 12일, 2면.

12) 『매일신보』, 1911년 9월 9일, 2면.

또한 조선귀족회는 내선융화를 달성할 목적으로 일본어의 일상적인 통용을 위해 유치원 설립과 교육사업에 참여했으며 빈민에 대한 구제, 문화·위생 부문의 시설 확립과 같은 다양한 자선사업을 통해 「사회의 모범」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귀족회는 지배기구인 총독부의 중추원과 경학원 등의 요직에 진출했으며 산업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직조업과 식림사업 등 다양한 종류의 회사를 운영해 자본을 축적했다.¹³⁾

다음에 1916년 11월에 설립된 대정친목회는 귀족, 실업가, 변호사, 의사, 신문기자, 종교가, 교육가, 기타 민간 유지 등 약 50여 명이 발기했다. 조선인 실업가를 중심으로 소수의 일본인이 고문과 간사로 참가했다. 회장에 조중응(자작), 부회장에 조진태(실업가), 고문에 아베(阿部充家, 매일신보 사장), 간사에 예종석(실업가), 유해종(이왕직), 홍충현(실업가), 최강(언론인), 방태영(언론인), 김린(교육가), 사일환(종교인), 안순환(실업가), 나카무라(中村健太郎, 매일신보·경성일보 간부) 등 9명, 평의원에 한상룡(평의장)을 비롯해 실업가 11명(백완혁, 김중환, 주성근, 김용태, 조병택, 김한규, 민유식, 박승기, 이강혁, 백형수), 의료인 3명(유병필, 김성기, 안상호), 변호사 2명(정구창, 최진), 귀족(박제빈), 군수(김용제), 언론인(선우일), 교육가(엄주익), 교육가이며 종교인(윤치호) 등 21명이 각각 추대되었다. 간부의 대부분이 실업가로 상층자본가였는데 이들은 주로 금융과 상업 부문의 임원 또는 주주로서 동업자 관계로 얹혀 있었다.¹⁴⁾

대정친목회의 설립 목적은 내선융화의 달성이었다. 이를 위해 대정친목회는 조선인의 잘못된 풍습을 바로잡고 총독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일본인과 조선인 「상류」 인사 간의 만남과 친목을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정친목회는 시간 엄수와 에누리 철폐 운동 등을 벌여 풍속개량을 실천했다. 또한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 봉축 행사를 발기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총독부 시책에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 그리고 총독부 고위 관리의 송영회와 초청 강연회, 초대회 등을 개최하여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교류를 통해 내선융화를 촉진하려 하였다.¹⁵⁾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대정친목회 회원들은 총독부의 신임을 받아 경성부협회의의원 등의 관직에도 진출했다.¹⁶⁾

이처럼 구평형은 1910년대의 대표적인 「고급사교구락부」인 대정구락부와 대정친목회와 같은 정치적 성격의 「내선융화구락부」이다. 이 구락부는 당시 일제가 지배목표

13) 1910년대 귀족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서는 심재욱, 「1910년대 朝鮮貴族의 實態 - 『毎日申報』 기사를 중심으로 - 」, 『사학연구』, Vol., No.76, 한국사학회, 2004년 참조.

14) 『매일신보』, 1916년 12월 1일, 2면; 『京城日報』, 1916년 12월 2일, 2면. 대정친목회의 자세한 조직과 간부에 관해서는, 장신,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 『대동문화연구』 제6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년, 366-375쪽 참조.

15) 『매일신보』, 1917년 1월 21일, 28일, 2월 7일, 27일, 4월 14일, 2면, 11월 2일, 3면, 10월 11일, 1면, 10월 14일, 16일, 2면, 17일, 20일, 3면. 대정친목회의 내선융화운동에 대해서는, 장신, 앞의 글, 375-380쪽 참조.

16) 1918년 4월 경성부협회의의원 조선인 8명이 재임되었는데 그 중 7명(조진태, 안상호, 백완혁, 민유식, 박제빈, 한상룡, 김한규)이 대정친목회 간부였으며(경성부, 『경성부사, 제3권』, 선광인쇄주식회사, 1941년, 536쪽), 1917년 12월 경성상업회의소는 임원을 선출했는데 선임된 조선인 2명(한상룡, 백완혁) 모두 대정친목회 간부였다(같은 책, 517-518쪽).

로 내세운 동화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융화를 위해 활동했다.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상층자본가들은 서로 간의 친목과 총독부 고관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자본 축적과 정치력을 확장하고자 했으며 총독부는 「내선융화구락부」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그의 협력을 얻음으로써 지배의 안정을 도모했다.

2)부분적인 해체의 개시

「내선융화구락부」가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해체를 개시한 요인으로는 공개적인 내선융화활동에 대한 반감, 총독부의 해외관광객 유치의 필요성,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관심, 골프 인지·경험자의 증가 등이다.

(1)공개적인 내선융화활동에 대한 반감

「내선융화구락부」는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융화를 공개적으로 내걸고 고관들과 친교하며 지배권력에 협력하고 풍속교화, 자선사업 등을 통해 조선사회의 지지를 얻어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특히 조선인들이 반발했다. 강제 병합으로 인해 일제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내선융화구락부」가 공공연하게 내선융화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투철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더구나 3·1운동이 발발하자 대정친목회 등 「내선융화구락부」의 활동은 더욱 어려워져 「유명무실의 형태」가 되었다.¹⁷⁾

(2)총독부의 해외관광객 유치의 필요성

총독부는 골프를 통해 외국인 여행객을 유치해 재정수입을 늘리려고 하였다. 1910년 병합 후 일제는 조선총독부철도국을 설치하고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조선인의 조선 및 일본 관광을 추진하였다. 1912년 일본철도원이 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일본여행협회를 조직하자 조선총독부 철도국도 참여하여 철도국 내에 조선지부를 설치하였다.¹⁸⁾ 그리고 1914년부터 조선호텔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골프가 유행하여 호텔을 찾는 외국인 손님은 골프를 「호텔의 부속 유희」로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호텔측에서는 숙박객의 체재 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수입 증가를 위해 골프장 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¹⁹⁾

(3)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관심

개항 이후 근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목이 외부로부터 도입되었는데 대표적인 구기종목은 축구, 야구, 정구, 농구 등이었다.

17) 『매일신보』, 1921년 1월 14일, 2면, 1922년 8월 3일, 3면 참조.

18) 조성운,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의 탄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년, 119, 127-129쪽.

19) 다카하타, 「조선골프소사 -이런저런 추억이야기-」, (이하, 「조선골프소사」, 페이지는 『골프의 탄생』에 의함) 『골프의 탄생』, 122-123쪽.

그 중에서도 1910년대에 재조일본인이 급증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야구와 연식정구(이하 정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야구와 정구는 경성을 비롯해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학교, 관청, 회사, 은행 등을 중심으로 구락부 활동을 통해 각종 대회와 시합을 개최하며 저변을 확대해갔다. 경성의 경우 경기를 원활히 진행하고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연합조직이 만들어졌다. 1918년 가을경 조선은행, 왜성구락부, 동양협회 등 15개 정구단이 「경성정구회」를, 1919년 1월에는 철도구락부, 경성구락부, 조선은행야구부, 한양구락부 등 4팀이 연합해서 「경성야구협회」를 결성했다. 이어 같은 해 2월에는 이 두 연합단체가 「조선에서의 체육을 장려하고 회원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동해서 「조선체육협회」를 결성하였다.²⁰⁾

이처럼 야구와 정구 등의 근대스포츠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들을 비롯해 새로운 스포츠로서 골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정구계의 선구자인 무사(武者鍊三)를 비롯해 「조선체육협회」의 평의원 25명 중 이이즈미(飯泉幹太 조선은행 인사부장), 한상룡, 구로사와(黒澤明九郎, 만철 경성관리국의 공장장), 마츠자키(松崎時勉, 조선우선(주) 전무), 안도(총독부 토목회 위원) 등 5명이 초기 경성골프구락부 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다.

(4)골프 인지·경험자의 증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19세기 이후 골프가 널리 보급되자 외국인 외에도 조선 밖에서 골프를 알게 되었거나 직접 경험한 재조일본인 및 조선인들이 조선 안에 유입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골프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우선 병합 이후 재조일본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본 또는 외국에서 이미 골프를 몸에 익히거나 아니면 골프에 대해 인지한 사람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골프를 향유하려 하였다. 일본은 1901년 효코켄(兵庫県) 코베(神戸)에 골프가 처음 도입되어 1904년에 같은 효코켄에 두 개의 골프장이 생긴 것을 시작으로 1906년 가나가와켄(神奈川県), 1913년 나가사키켄(長崎県), 1914년 도쿄후(東京府), 사이다마켄(埼玉県) 등으로 확대되어 1920년까지 전국에 12개의 골프장이 건설되었다.²¹⁾ 특히 재조일본인 중에는 일본 본국에 막 수용되어 소수만이 즐기게 된 골프를 조선에서 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존재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²⁾

그리고 유학과 출장 등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고 돌아온 조선인들이다. 조선인 유학생의 경우 1910년대 총독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간 유학생은 미국에 26명, 유럽에 5명이었으며 일본에는 6,200여명에 이른다.²³⁾ 이들 중 이 모두 골프를 경험했다고는

20) 波荷生, 「한말전후의 조선체육계 1,2,3,4」, 『동아일보』, 1929년 1월 1일, 3면, 2일, 4면, 3일, 4면, 5일, 3면; 大島勝太郎, 『朝鮮野球史』, 朝鮮野球史發行所, 1932년, 1-133쪽; 김동명, 「식민지기 테니스의 문화접변-경식정국에서 연식정구로-」, 『한일관계사연구』, 제74집, 한일관계사학회, 2021년, 359-365쪽.

21) 「全國 歴史の古い名門ゴルフ場ランキング」(<https://www.100yardage.com>).

22) 이규수, 「재조일본인 연구과 식민지수탈론」 『일본역사연구』, 제33집, 일본사학회, 2011년, 167쪽 참조.

23) 홍선표, 「일제하 미국 유학연구」, 『국사기관논총』, 96, 국사편찬위원회, 2001년, 157-158쪽.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골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선에 돌아와 상층 자본가층에 편입하자 골프를 통한 사교구락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3. 골프구락부의 전파와 수용

부분적인 해체가 개시되면 문화 전체의 해체를 피하기 위해 외인에 의한 문화변화의 경우 외래문화요소가 전파·제시되고 이어서 선택·수용이 일어난다. 기능하지 못하는 문화요소를 새로운 문화요소로 바꾸기 위해 다른 문화로부터 외래문화요소가 전파, 제시된다. 전파·제시된 외래문화요소는 수용자측 문화에 있는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필터는 필요성과 적합성이라는 조건이다. 전자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이고 적합성은 전통, 또는 사람들의 선호나 가치이다. 만약 외래문화요소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절 또는 묵살되어 선택·수용이 일어나지 않는다.²⁴⁾

1) 외래문화요소의 전파 및 제시 : 효창원골프장

「내선유희구락부」의 부분적인 해체를 막기 위해 외래문화요소로서 골프가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정식으로 전파, 제시된 것은 1921년 6월 1일에 개장한 효창원골프장을 통해서이다.²⁵⁾ 효창원골프장 건설은 1917년 당시 조선총독부 철도관리국 이사로서 철도관리국이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에 위탁 경영되면서 같은 회사 경성관리국 운수과장에 취임한 안도(安藤又三郎)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안도는 중국 다롄(大連) 만철 본사에 출장 갈 때마다 만철이 운영하는 야마토(大和)호텔의 부속시설인 호시가우라(星ヶ浦)골프장에 안내받아 「상쾌한 플레이와 잘 정돈된 코스」를 보고 매력을 느껴 경성에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후 안도는 철도관리국장 구보(久保要三)의 양해를 얻어 조선호텔 지배인 이하라(猪原真雄)와 협의한 끝에 1918년 5월 아래와 같은 목적과 계획하에 골프장 건설에 착수했다.²⁶⁾

최근 골프가 유행해 호텔의 부속 유희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설비 결과는 호텔숙박객의 체재 기간을 연장해 호텔 수입 증가의 일조가 될 수 있는데 경성에는 아직 이 설비가 없어 유감이든 차에 용산 효창원 부근의 국유지를 임대해 골프장으로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조선호텔의 관리하에 대략 다음에 따라 경영하기로 했다.²⁷⁾

24)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92-97, 113-114쪽.

25) 한편, 조선에 골프가 처음 전파된 것은 1900년경 당시 원산항 세관에 근무했던 외국인들이 세관 구내에서 골프를 하면서이며(다카하타, 「일본골프의 발상지는 조선 -40년 전 이야기」, 『골프의 탄생』, 115-117쪽; 조상우·정동구, 앞의 논문, 28-29쪽), 1913-14년 사이에 황해도 구미포에 역시 외국인들에 의해 골프장이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다(조상우·정동구, 앞의 논문, 29-31쪽). 이는 본고에서 채용한 문화접변의 과정에서 보면 이때 골프가 실제 조선에 전파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설사 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제시되지도 못하고 거절 또는 묵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6) 「조선골프소사」, 122쪽, 『골프의 탄생』, 17-18쪽.

말하자면 골프를 즐기는 외국 여행객들을 적극 유치하여 숙박기간을 늘림으로써 호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효창원 부근 국유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만들고 조선호텔이 관리,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골프장 부지로 효창원을 선택한 이유는 도심에 위치하고 특히 조선호텔에서 가까우며 임대하기 쉬운 국유지였기 때문이다. 효창원은 1786년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가 죽자 효창묘로 조성되었다. 이후 그의 생모 의빈 성씨, 순조의 후궁 숙의 박씨, 그의 딸 영은옹주의 묘가 차례로 들어서며 고종 7년인 1870년에 효창원으로 격상되었다. 왕실묘역인 효창원은 굉장히 넓고 소나무 숲이 울창했는데 개항 후부터 점차 훼손되기 시작했다.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효창원에 숙영지를 만들고 유곽과 철도 관사를 지으면서 왕실묘역이 잠식되어갔다. 이후 재조일본인들이 교통이 편리한 도로 주변과 일본군용지역 주변에 집중 거주하면서 효창원에서는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축구와 정구 등 운동경기를 즐겼다. 또한 효창원은 단체들의 대규모 야유회나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효창원은 더 이상 전통적인 왕실묘역이 아닌 근대적인 공원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다.²⁸⁾

1919년 1월 철도관리국은 예정대로 효창원 부근 국유지내 5만 7,981평을 임대하고 같은 해 5월 골프장 설계를 당시 일본 코베에 거주하고 있던 영국인 던트(H. E. Dannt)에게 의뢰했다. 1921년 6월 1일 9홀 전체 길이 2,322야드의 골프장이 개장하였다. 골프장은 조선호텔 골프부에서 운영했는데 개장 당시에는 주로 호텔에 체재하는 외국인 전용 형태였다. 이후 회비제도를 만들고 안도 등이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 고관과 민간 유지 등 주로 재조일본인들이 조금씩 골프에 가세하기 시작하면서²⁹⁾, 중국으로 조선에 골프라는 새로운 문화요소가 전파,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필터

효창원에 골프장이 개장함으로써 골프가 조선에 전파·제시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생겨났다. 하나는 필요성 측면에서 기존에 효창원에서 산책하거나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골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적합성 측면에서 다른 종목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요소인 골프를 선호하지 않고 배척했다.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자유롭게 효창원을 이용했던 그들은 골프장 밖으로 넘

27) 「철도관리국 회의 제1,364호」, 「조선골프소사」, 122쪽에서 재인용.

28) 김해경, 「효창공원의 장소성 형성과 변화 해석」, 『서울학연구』, 제39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년, 82-91쪽; 강혜경, 「효창공원의 역사적 중층성과 상징성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5 No.1,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년, 228-229쪽; 이순우, 「효창원(孝昌園), 아주 오래 지속된 공간수난사의 이력」, 『내일을 여는 역사』, 74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19년, 249-256쪽; 박수원, 『노기남 대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년, 127쪽; 『매일신보』, 1915년 6월 5일, 1921년 5월 4일, 3면.

29) 『조선시보』, 1921년 6월 25일, 3면; 「조선골프소사」, 123-125쪽; 『골프의 탄생』, 18-21쪽; 『한국골프 100년』, 67-71쪽.

어오는 OB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공에 맞아 부상을 입는 일까지 일어나자 이에 항의하면서 골퍼들과 자주 충돌했다. 그들은 골프를 소수가 전유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³⁰⁾

3) 외래문화요소의 수용 : 경성골프구락부 창립과 청량리골프장

효창원골프장을 통해 조선에 전파, 제시된 골프는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거절·묵살에 이르지 않고 선택·수용으로 이어졌다. 이는 1924년 경성골프구락부 설립과 청량리골프장 개장에 의해 필터에서 나타난 문제 등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아리요시(有吉忠一), 내무국장 오츠카(大塚常三郎), 칙임관·외사과장 이쿠다(生田清三郎) 등 고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리요시였다. 정무총감은 총독의 바로 아래에서 군사통수권을 제외한 행정, 사법을 통괄하던 최고위 직책이었다.

아리요시는 1907년 내무성 관료로서 유럽 각국을 시찰할 때 영국에서 골프를 접하고 1922년 조선에 부임하기 직전에 가나가와켄 지사(1915-1919)와 효고켄 지사(1919-1922)를 역임하며 골프에 관여했다.³¹⁾ 가나가와에는 1906년 네기시(根岸)골프장(NRCGA)과 1917년 센고쿠(仙石)골프장이 각각 만들어졌고 코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 골프의 발상지로 1920년까지 일본 전체 골프장 12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1907년부터 1918년까지 코베와 네기시의 골프장에서 일본아마추어골프선수권 대회가 열릴 정도로 두 지역은 초창기 일본 골프의 중심지였다.³²⁾

내무국장 오츠카는 1921년 5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전후(戰後) 구미 사정」을 시찰했는데 런던 체재 중에 아는 사람의 권유로 골프 레슨을 받았다. 이후 영국 체재 중은 물론 미국 여행 중에도 틈나는 대로 골프장을 방문했다.³³⁾ 조선에 돌아오자 골프의 본고장에서 배운 그의 골프 지식은 당시 골프인들 사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들고 온 새로운 골프클럽은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³⁴⁾ 또한 이쿠다는 1920년 4월부터 중국, 인도, 구미 각국에 약 1년 반 동안 시찰하고 돌아왔다.

1922년 7월 조선에 부임한 아리요시는 다음해 1월 「재경관민유지의 골프협의회」를 「주창」하고 조선호텔에서 제1회협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무총감 아리요시를 비롯해 총독부 측에서 내무국장 오츠카, 외사과장 이쿠다, 사회과장 야지마(矢嶋杉造), 총독비서관 나카무라(中村寅之助), 민간 측에서 조선은행 인사부장 이이즈미, 같

30) 「조선골프소사」, 131쪽; 박수원, 앞의 책, 127-128쪽; 『한국골프 100년』, 71쪽.

31) 有吉忠一, 「思い出のま々(一)」, 『朝鮮新聞』, 1935년 8월 9일, 1면; 『한국골프 100년』, 68쪽; 「조선골프소사」, 128쪽.

32) 앞의 「全國 歴史の古い名門ゴルフ場ランキング」; 「競技発祥から日本人 チャンピオンが誕生するまで」, 日本ゴルフ協會, 『Golf Journal』 vol. 67, 2001년 (http://www.jga.or.jp/jga/html/about_jga/vol67/index.html); 日本プロゴルフ協會(監修), 『現代ゴルフ全集 1』, 東京, 中央公論社, 1959년, 90-91쪽.

33) 大塚常三郎, 「ゴルフを通じて観た人生」, 『鮮満體育界』, 제1권 제2호, 1922년 12월호, 2쪽.

34) 「조선골프소사」, 129쪽.

은 은행 비서 모리히라(森平正一), 만철 경성관리국 공장장 구로사와, 미츠이(三井)물산 지점장 스미이, 조선호텔 지배인 데라사와(寺澤)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아리요시는 조선의 골프 「발전」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한 결과」 각각 부서를 나누어 연구에 착수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안을 작성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기로 결의했다.³⁵⁾

앞으로 다른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골프장을 설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효창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 대부분 규칙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골프 경기에 관한 규칙을 연구해 정확한 기준을 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의 회장(會場)인 효창원골프장은 만철회사가 관리 경영하고 있는데 만약 다행히 회원 조직을 확립할 수 있다면 회의 조직을 견실히 해서 회장 부회장 간사 등의 조직을 두고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골프장의 개선 수리 또는 공 찾는 훈련, 기술의 향상, 규칙의 이행 등 그 외 문제들을 담당하면 …

여기서 아리요시는 새로운 골프장을 건설할 것, 골프 규칙을 제정할 것, 골프구락부를 조직할 것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해 갔다.

우선 아리요시는 골프장을 만철의 관리 경영에서 벗어나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골프구락부를 설립했다. 1924년 3월 1일 조선호텔에서 경성골프구락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아리요시를 비롯해 55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아리요시를 의장으로 추대하고 사단법인 경성골프구락부 설립의 건, 정관 작성의 건, 임원선정의 건(아리요시에게 일임), 청량리골프장 설계의 건(이노우에에게 의뢰) 등을 의결했다. 초대임원으로서는 이사에 안도(安藤又三郎, 총독부 토목회 위원), 이우치(井內勇, 조선은행 이사), 오자키(尾崎敬義, 동양척식회사 이사), 이항구(이왕직 예식과장), 스미이(조선생사회사 감사), 오츠카(총독부 내무국장), 나카노(만철 경성관리국 건설과장), 무사(경성전기회사 전무이사), 데이비드 선을, 감사에는 아리가(有賀光豊, 조선식산은행장), 시노다(이왕직 차관)를 각각 선임했다.³⁶⁾

다음에 아리요시는 새로운 골프장 건설에 착수했다. 당시 효창원골프장은 주민들의 민원 이외에 골퍼들 사이에서도 코스가 협소하다는 불만이 불거졌다. 실제로 효창원골프장은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관리 곤란 때문에 9홀 중 7홀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지리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고 명실상부한 18홀 규모의 정규 골프장을 만들자는 의견이 대두하였다.³⁷⁾

아리요시 등은 토지 매수 경비를 고려하여 청량리 근처 고양군 송인면 석곶리(현재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이왕가(李王家)의 의릉(懿陵, 경종의 묘)이 포함되어 있는 능림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이왕가의 사무를 담당하던 이왕직의 차관 시노다(篠田治策)와 예식과장 이항구가 도와주었는데 이들은 「골프마니아」였기 때문에 순

35) 「京城ゴルフ研究会生る」, 『鮮滿體育界』, 제2권 제1호, 1923년 2월호, 62쪽.

36) 「조선골프소사」, 134쪽. 전체 회원은 80여명이었다(『조선일보』, 1924년 10월 8일, 2면).

37) 「조선골프소사」, 123, 131쪽; 『한국골프 100년』, 71쪽.

조롭게 일이 진행되었다. 골프장 설계는 일본인 이노우에(井上信)에게 맡겨 1924년 4월 청량리골프장을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했다. 당초 완전한 18홀로 예정했으나 지형상 17, 18홀의 2코스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16홀로 완성되었다. 전 코스가 푸른 소나무에 둘러싸이고 북한산,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의 봉우리를 소나무를 통해 볼 수 있는 매우 웅장한 경치였으며, 효창원골프장과는 달리 매우 한적한 「정말로 속세와 떨어진 장소」였다.³⁸⁾ 청량리골프장은 같은 해 7월 일본에 돌아간 아리요시가 「조선에 주고 가는 최후의 선물」이었다.³⁹⁾

다음에 아리요시는 영국에서의 골프 경험을 바탕으로 골프에 대한 이해가 높아 정확한 규칙과 에티켓을 지키며 플레이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퍼팅은 무사도를 중시하는 사내대장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략했던 관례를 깬으며 플레이 도중 숲속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것을 에티켓 위반이라며 질타하는 등 골프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조선의 골프가 「골프다워졌다」.⁴⁰⁾

이와 같이 아리요시는 조선에 부임해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해 조선에 골프구락부가 수용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골프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열정에 많은 부분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사적 개인이 아니라 조선 지배의 실질적인 책임자였음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조선 지배 목표와 총독부 내부의 사정도 함께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아리요시는 당시 조선에서 일제의 지배목표인 동화를 달성하기 위해 골프구락부를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했다.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동화를 하루아침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과 조선의 풍습과 언어가 서로 달라 총독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 「분요(紛擾, 갈등)」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아리요시는 양자 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갈등을 제거하여 동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¹⁾ 골프구락부도 그 중 하나였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리요시는 총독부 내에서 취약한 자신의 입지를 골프구락부를 통해 극복하려 하였다. 그는 전임 정무총감 미즈노가 급거 내무대신에 취임하게 됨에 따라 총독 사이토와의 오랜 연고와 내무대신 미즈노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지방관에서 일약 정무총감에 취임하여 조선에 부임했다. 지방관 출신 정무총감 취임에 대해서 조선에서의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고, 내각과 의회 교섭에서는 전임자인 미즈노의 협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총독부 내의 그의 입지가 확고하지 않았다. 또한 미즈노가 여전히 총독부 인사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했던 총독부관료에게도 백안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미즈노파 관료들과 갈등을

38) 「조선골프소사」, 131-133쪽.

39) 『매일신보』, 1924년 7월 5일, 3면.

40) 『한국골프 100년』, 68쪽; 「조선골프소사」, 126-130쪽.

41) 『매일신보』, 1922년 8월 3일, 3면; 『조선일보』, 1923년 3월 11일, 2면 참조.

빛기도 하였다.⁴²⁾ 아리요시는 골프구락구의 사교 활동으로 고위 관료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총독부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4. 골프구락부에의 저항

새로운 문화요소를 선택·수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용자측 문화가 밖에서 들어온 다른 물질을 배제하려는 것이 문화적 저항이다. 새로운 문화요소와 기존의 문화요소가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용자측 문화요소도 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수용자측 문화의 사람들은 주변의 문화요소를 그대로 둔 채 나쁜 부분만을 즉시 대체하고 싶어한다. 주변 문화요소까지 바꾸면서 새로운 문화요소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⁴³⁾ 새로 수용된 골프구락부에 대해 업무 소홀에 대한 비난, 땀감을 잃은 주민들의 반발, 유한계급의 유희·오락에 대한 반감, 미비한 골프장 설비에 대한 불만, 정경유착에 대한 불평 등의 저항이 생겨났다.

1) 업무 소홀에 대한 비난

골퍼들이 골프를 즐기기 위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데에 대해 비난이 일었다. 예를 들면 이왕직의 예식과장 이항구와 차관 시노다가 종묘 안에서 어보가 분실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골프를 치러 갔다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난받은 일이다. 앞서에서도 언급한 대로 두 사람은 골프매니아로서 청량리골프장 건설을 적극 도왔으며 경성골프구락부의 초기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맡았다. 1924년 4월 종묘 안에 도적이 들어 영련전(永寧殿)에 안치되어 있던 덕종(德宗)과 예종(睿宗) 양 조의 어보를 훔쳐갔다. 종묘 내의 절도사건은 조선왕조 500년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범인에 대한 단서도 찾지 못하자 이왕(순종)을 비롯한 창덕궁 내는 「주야로 초초한 빛에 싸였으며」 특히 이왕은 「거의 침담을 잊」고 어보의 행방을 물으며 노심초사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직접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항구와 시노다가 아침부터 자동차를 몰아 골프장에 가서 온종일 「골프놀이에 정신이 없었다」. 이에 이왕직 안에서는 물론 왕족과 귀족 간에도 어보를 찾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데에 대해 비난이 높았으며 일반인들도 「눈살을 찌푸」렸다.⁴⁴⁾

2) 땀감을 잃은 주민들의 반발

청량리골프장 건설 당시 그 인근에는 100여 호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골프장 건설 이전 그곳 산기슭에 여러모로 의탁해서 대대손손 생활해왔다. 특히 겨울에 낙엽을 굵거나 풀을 베어서 땀감으로 사용해 추위를 면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골프장

42) 이형식, 「중간내각 시대(1922.6-1924.7)의 조선총독부」, 『동양사학연구』 제113집, 동양사학회, 2010년, 274-276쪽 참조.

43)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124-126쪽.

44) 『동아일보』, 1924년 4월 13일, 15일, 2면.

이 건설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땀감을 구해왔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중대한 사할문제」로 생각하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진행 중인 공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경찰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⁴⁵⁾ 주민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잃을 것으로 느껴서 새로운 문화요소인 골프에 대해 격렬한 적의를 품고 배척한 것이다.

3)유한계급의 유희·오락에 대한 반감

골프를 「유한계급의 유희」나 「배부른 양반들의 놀이터」, 「황금에 싸여있는 내외 관민의 오락」 등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자동차나 타고 뒤늦게 출근하여 한가하게 도장 몇 번만 찍으면 그날 일은 다 보았다 하는 각 관청의 각하 자리들이며 민간으로는 사장 전무」등인 골프구락부 회원들이 즐기는 골프는 스포츠가 아닌 유희나 오락에 불과하며 노동자 계급의 생활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당시 골프장에 이동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자동차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청량리골프장은 청량리 전차 종점에서 언덕 넘어 10리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런데 초기 80여명 회원들 중에 개인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이왕직 예식과장 이항구뿐이었다. 따라서 나머지는 공용차나 관용차를 이용했다. 이에 골프구락부 회원들이 「사원들이 땀을 흘려 벌여놓은 회사의 비용이나 또는 인민들의 고혈을 다해 바친 세금」으로 개인의 유희나 오락을 즐기며 「지위와 세력을 남용」한다는 데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다.⁴⁶⁾

4)미비한 골프장 설비에 대한 불만

청량리골프장에 이전한 후 경성골프구락부 회원들이 늘어나고 구락부 운영이 활성화되어 회원들의 골프 실력이 향상되자 골프장 설비에 대한 불만이 생겨났다. 우선 회원의 경우 일본인과 외국인은 물론 외국에서 골프를 배운 몇 명을 제외한 「토착」의 조선인 중에서도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다음에 경성골프구락부가 일본의 프로골퍼인 후쿠이(福井覺治)와 나카가미(中上數一)를 초청하여 골프 게임의 기본과 골프 레슨을 실시하고 1925년에 제1회 전조선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들의 골프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 그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경성골프구락부 회원들 사이에 골프장 코스가 짧다, 잔디 상대가 좋지 않다, 벙커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규 18홀이 아니다 라는 등의 골프장 설비에 대한 불만이 분출하였다. 특히 골프의 본고장인 외국이나 일본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온 사람들이 골프구락부에 가세하면서 이러한 불만은 더욱 고조되었다.⁴⁷⁾

45) 『매일신보』, 1924년 10월 5일, 5면; 『조선일보』, 1924년 10월 8일, 2면, 10월 10일, 1면.

46) 『매일신보』, 1924년 10월 5일, 5면; 『조선일보』, 1924년 10월 8일, 2면, 10월 10일, 1면, 1927년 7월 5일, 2면. 한편 경성골프구락부에서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와 특약하여 동대문에서 골프장까지 왕복 1원에 승객 네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차를 운행하기로 했다(『매일신보』, 1924년 12월 3일, 3면).

47) 「조선골프소사」, 139쪽; 100년사, 72-75; 『골프의 탄생』, 22-27쪽; 조상우·강승애·곽성연, 앞의 논문, 5

5)정경유착에 대한 불평

골프 경기는 기본적으로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플레이되므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 은밀한 로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당시 골프구락부 멤버의 대부분은 총독부 고관과 상층자본가인 실업가였는데 일부 실업가들은 총독부 고관을 일요일에 방문해서 「진정이라는 방법」으로 거의 봉쇄된 형태로 골프를 즐기며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 하였다. 이 때문에 골프라는 「유희」를 통해 총독부 정치 권력과 부르주아가 유착한다는 데에 대한 불평이 생겨났다.⁴⁸⁾

5. 골프구락부의 정착

새로운 문화요소는 저항을 겪으며 외래문화요소와 그와 관련된 재래 문화요소와의 재해석이 일어나며 재구성되어 신평형에 이르며 정착한다. 저항을 거친 외래문화요소가 선택되는 것은 제공자측 문화 체계 속에서 갖고 있던 기능과 의미 때문이지만 그 대로는 수용자측 문화 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어느 정도 의미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요소가 도입되면 수용자측 문화도 그의 압력을 받아 주변의 문화요소가 변한다. 이것은 수용자측 문화에 의한 거부반응이다. 서로 간의 적절한 재해석은 이 거부반응을 견뎌내고 조직적으로 적합해야 비로소 생겨나며 이때 문화 전체가 활력으로 가득한 문화로 다시 살아난다. 즉 새로운 요소를 포함해서 문화는 재구성되고 새롭게 평형상태에 이르며 마침내 문화 전체의 해체 과정이 멈추고 정착하는 것이다.⁴⁹⁾

1)문화요소의 재해석

외래문화요소는 저항을 겪으면서 일정 정도 의미를 바꾸게 되며 문화요소가 새롭게 들어옴으로써 수용자측 문화의 주변 문화요소도 변한다. 이에 의해 조직적 적합성이 높아지면 문화요소의 재해석이 일어난다. 18홀 정규코스 군자리골프장 개장, 다양한 골프대회 개최, 베이비골프의 유행 등은 주로 수용자측 주변의 문화요소가 변한 것으로 조직적 적합성이 높아져 골프구락부라는 문화요소의 의미가 재해석된 것이다.

(1)18홀 정규코스 군자리골프장 개장

경성골프구락부는 회원 증가와 회원들의 골프 실력 향상 등으로 인해 청량리골프장의 설비가 미비하다는 불만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골프장 이전을 추진했다. 1927년 가을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골프장 건설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

쪽.

48) 「조선골프소사」, 135쪽 참조.

49)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143-145, 151쪽.

결과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군자리를 골프장 부지로 선정했다. 군자리는 현 광진구 군자동 어린이대공원 일대로 이왕가의 유릉(裕陵)이 있었던 곳이다. 유릉은 원래 순종이 황제에 즉위하기 전에 사망한 황태자비가 처음 안장된 곳으로 유강원(裕康園)으로 불리었는데, 1907년 즉위한 순종이 황태자비를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로 추봉하고 능호를 부여했다. 1926년 순종이 사망하자 순명효황후의 묘는 경기도 양주군 금곡리(현 남양주시 금곡동)로 이장되어 순종과 합장되었다. 이 때문에 이장 후 소나무 숲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약 30만 평의 군자리 유릉터가 새로운 골프장 부지로 낙점된 것이다.⁵⁰⁾

이후 경성골프구락부가 군자리골프장을 순조롭게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왕직 차관 시노다가 이왕(李垕)을 설득하여 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노다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경성골프구락부의 초대 임원으로 청량리골프장 건설 때에도 이왕가의 능림을 임대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왕은 고종의 7남 영친왕으로 1907년 황태자에 책봉되어 11세 때 일본으로 「유학」 보내졌다. 그 후 1910년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황실이 이왕가로 격하되자 이왕세자가 되었으며 1926년 순종의 뒤를 이어 이왕에 즉위했다.

이왕은 이왕세자 때인 1923년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보병대위로 승진하여 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골프를 비롯한 정구와 승마 등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매일 맹렬한 연습」을 계속했다. 1924년 12월부터 참모본부에 근무하면서는 황실 정원인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다른 황족들과 수시로 골프를 즐겨 1925년 황태자가 주최하는 「제2회 동궁(東宮)컵 쟁패의 골프경기」에 참가할 정도로 「대단히 숙달」된 골퍼였다.⁵¹⁾

이후 이왕은 조선의 골프구락부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1926년 10월 경성골프구락부가 주최한 조선골프대회를 겸하여 열린 조선골프선수권대회에 조선골프계의 발전을 위해 우승컵을 「하사」했다.⁵²⁾ 그리고 1927년에는 경성골프구락부의 명예총재에 취임했다.⁵³⁾

한편, 이왕은 1927년 5월부터 1928년 4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의 13개국을 방문했다. 이 방문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준 시노다가 직접 이왕을 수행했다. 이왕은 참모본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제1차세계대전의 전적지를 시찰하는 것이었지만 박물관, 병원, 대학, 음악당, 미술관, 성당 등 다양한 곳을 둘러보았다. 또한 골프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왕성하게 펼쳤다. 부인과 시노다 등 일행을 비롯해 골프장 소속 프로골퍼 등과 총 20여 회에 걸쳐 라운딩했다. 특히 영국에는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머물면서 골프의 발생지로 알려진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Saint Andrews) 골프장 등에서 무려 15번이나 골프를 쳤다. 라운

50) 골프 100년, 74-75; 「조선골프소사」, 139.

51) 『조선일보』, 1924년 12월 22일, 2면; 『매일신보』, 1925년 3월 23일, 2면.

52) 『동아일보』, 1926년 9월 14일, 5면.

53) 「영친왕의 골프 활동」, 989쪽.

딩 외에도 방문한 골프장 소속 프로골퍼에게 레슨을 받았으며 골프 아카데미와 던롭 골프공 제조 공장을 방문하였다.⁵⁴⁾

유럽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왕은 군자리골프장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시노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왕가가 소유한 유릉터 일대의 골프장 부지를 무상으로 경성골프구락부에 대여하고 골프장 공사비로 20,000엔을 「하사」했다. 또한 이왕직은 3년 동안 매년 5,000엔씩 15,000엔의 운영비와 골프장 내의 벌목 매각 대금 약 10,000엔을 제공했다. 여기에 경성골프구락부는 구락부 기금 20,000엔과 회원 및 유지의 특별기부금을 더해 1928년 6월에 골프장 공사에 착수해서 마침내 1930년 6월 22일 파 69, 총연장 6,160야드의 조선 최초의 18홀 정규코스인 군자리골프장을 준공하고 이곳으로 이전하였다.⁵⁵⁾

이처럼 이왕직 차관 시노다와 이왕이 군자리골프장 개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골프애호가이며 둘 사이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유럽에서 앞선 골프를 직접 체험한 이왕은 경성골프구락부의 명예총재로서 조선에도 국제 수준의 정규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조상우의 추정은 매우 타당하다.⁵⁶⁾ 이왕은 과거의 봉건적인 유제를 머금은 전통적인 능터가 그대로 보존되기 보다는 일본과 유럽 등 근대사회에서 유행하는 골프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 조선의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는 유럽 방문을 마치고 순종의 3년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조선에 돌아오는 그에 대한 조선사회 일부의 기대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한 신문은 골프에 취미를 가진 이왕이 유럽 각국의 실재를 돌아보고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조선의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장래 조선인의 「복지와 강령」에 대해 깊이 「사료」할 것으로 전망했다.⁵⁷⁾

(2) 다양한 골프대회 개최

다양한 골프대회 개최는 골프구락부가 소수의 폐쇄적인 「고급사교구락부」로서 단순히 유희나 오락을 즐기는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골프의 저변확대와 골퍼들의 기량 향상을 통해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스포츠 성격의 구락부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54) 李王職編, 『(李王同妃兩殿下)御渡歐日誌』, 李王職, 1928년; 篠田治策, 『歐洲御巡遊隨行日記』, 大阪屋號書店, 1928년; 篠田治策, 「李王同妃兩殿下御外遊に扈從して(一), (二)」, 『京城日報』, 1928년 5월 11일, 12일, 3면; 「영친왕의 골프 활동」, 989쪽.

55) 「조선골프소사」, 140-141쪽; 『골프의 탄생』, 26-29쪽; 「영친왕의 골프 활동」, 991-992쪽; 『한국골프 100년』, 75쪽. 한편, 군자리골프장의 정식 개장과 경성골프구락부 이전일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6월 22일 날짜는 동일하나 연도는 1929년과 1930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필자가 1930년으로 특정한 이유는, 이미 최영정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최영정, 『코스에 자취를 남긴 사람들』, 국민체육진흥공단, 2000년, 비매품), 당시 신문이 명확하게 1930년에 경성골프구락부가 군자리골프장이 준공되어 이전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京城日報』, 1930년 6월 24일, 2면), 또한 같은 해 10월에 열린 「전조선골프대회」가 군자리골프장 준공 이후 처음 열렸다는 기사도 이를 방증하기 때문이다(『매일신보』, 1930년 10월 7일, 2면; 『동아일보』, 1930년 10월 9일, 7면).

56) 「영친왕의 골프 활동」, 991쪽.

57) 「李王殿下 御歸鮮」, 『朝鮮新聞』, 1928년 5월 2일, 1면.

경성골프구락부는 1925년부터 전조선골프대회와 전조선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다.⁵⁸⁾ 전자는 메달플레이(medal play)로, 후자는 매치플레이(match play)로 진행되었다. 1926년 대회부터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우승자에게는 이왕이 「하사」한 우승컵이 수여되었다. 1932년 대회의 경우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조선골프선수권대회와 전조선골프대회가 군자리골프장에서 거행되었다. 23일부터 시작된 전조선골프선수권대회에는 경성 9명, 평양 2명, 원산 1명, 대구 4명 등 총 16명의 선수가 18홀 매치플레이로 겨룬 결과 25일 결승에서 평양의 사카모토(阪本)가 우승하였다. 이어 25일에 열린 전조선골프대회에는 각지에서 65명이 참가하여 27홀 메달플레이를 행한 결과 총독부이재과장 고지마(児島)가 우승하였다.⁵⁹⁾

이 외에도 경성골프구락부는 정무총감컵경기, 창덕궁컵경기,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大毎)컵경기, 아리가(有賀, 조선식산은행장)컵전, 미츠이(三井)물산지점장컵쟁탈전 등을 열었다.⁶⁰⁾ 특히 경성골프구락부는 「조선 내 각 골프구락부 상호 간의 연락을 밀접하게 하고 골프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선골프연맹 창립을 주도했다. 당시 조선에는 경성, 부산, 대구, 평양, 원산 등 5개 지역의 골프구락부가 있었는데 각 구락부가 매년 1회 초청대회를 거행해 구락부 상호 간의 친목을 유지해왔을 뿐 이를 통일할 기관이 없어 유기적인 연락을 할 수 없었고 구락부 간의 일체감이 희미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37년 9월 설립된 조선골프연맹은 전조선아마추어선수권경기대회와 가맹구락부경기대회 등을 개최하고 대회의 규정을 발표했으며 기관지 『클럽라이프』를 발행했다. 이러한 조선골프연맹의 활동에 힘입어 전국규모의 대회가 활기를 띠었으며 조선인 골퍼도 늘어났다.⁶¹⁾ 또한 경성골프구락부가 조선인 연덕춘을 프로골퍼로 육성한 것도 스포츠 성격의 구락부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 것이었다.⁶²⁾

(3) 베이비골프의 유행

베이비(ベビー, Baby)골프는 오늘날의 미니(Mini)골프로 골프장을 단순하고 짧게 축소하여 만들어 퍼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해서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골프가 「유한 계급의 유희·오락」이라는 비난을 누그러

58) 『한국골프 100년』, 74쪽; 「조선골프소사」, 136쪽.

59) 『동아일보』, 1932년 9월 28일, 7면. 메달플레이는 스트로크플레이(stroke play)라고도 하며 한 라운드에 소요된 타수를 종합하여 그 수가 적은 사람이, 매치플레이는 각 홀마다 타수가 적은 사람이 승리하여 이긴 홀이 많은 사람이, 각각 승자가 되는 경기 방식이다.

60) 『동아일보』, 1932년 4월 23일, 8월 30일, 7면; 『매일신보』, 1930년 11월 5일, 2면, 1933년 7월 6일, 7면; 『京城日報』, 1930년 11월 5일, 3면.

61) 조선골프연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골프의 탄생』, 47-54쪽 참조. 「조선골프연맹 규약」과 「조선골프연맹의 대회 규정」은 같은 책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143-153쪽).

62) 연덕춘은 1932년 경성골프구락부의 군자리골프장 프로후보생으로 취직하여 2년간 훈련한 후 1934년 일본인 회원의 권유로 일본으로 골프 유학을 떠났다. 경성골프구락부는 연덕춘에게 숙식비를 비롯하여 골프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매달 30원씩 지원해 주었다. 연덕춘은 1935년 2월 일본 관동프로골프협회의 프로자격증을 획득하고 1937년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1941년 마침내 제14회 일본오픈골프선수권경기에서 우승하였다(유윤철·진윤수, 「프로골퍼 연덕춘의 생애와 체육활동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17권 1호, 한국체육사학회, 2012년).

뜨리는 데 일조했다.

베이비골프는 1920년대 미국에서 미니어처(Miniature, 소형)골프 또는 탐섬(Tom Thumb, 난쟁이)골프 등으로 불리었는데 이후 일본과 조선에 도입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베이비골프가 미국에서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은 1927년 테네시(Tennessee)주의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가넷 커터(Garnet Carter)가 인조그린을 사용해 표준화된 미니골프장인 「탐섬골프」 특허를 취득해 대량 판매하면서부터이다. 그 결과 탐섬골프장은 1920년대 후반까지 뉴욕시에만 150개 이상이 옥상에 생겼고 이후 1930년대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옥상, 빈집, 빈극장 등에 수만 개가 들어섰다.⁶³⁾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베이비골프가 건너온 것은 1930년 10월이다. 시타바(下羽寅吉)가 도쿄에 18홀 70평 정도의 베이비골프장을 만들자 이듬해 3월에는 도쿄에만 27개로 늘어났다. 이어 1930년 12월 오사카를 시작으로 고베, 교토 등에서도 많은 베이비골프장이 생겨났다. 1931년 6월경에는 도쿄와 그 근교에 60여 개, 요코하마와 나고야를 포함하면 140~150개에 이를 정도로 크게 유행했다.⁶⁴⁾

베이비골프장이 미국에서 일본에 상륙한 지 불과 6개월 후인 1931년 4월 조선에 베이비골프장이 처음 만들어졌다. 경성전기주식회사는 경성 혼마찌(本町, 현재의 충무로) 구사옥 터에 총공사비 2천 5백원을 들여 베이비골프장을 개장했다. 개장 전날 2백여 명의 「신사숙녀」를 초대했는데 홀은 18개로 경기료는 1게임에 30전이었다.⁶⁵⁾ 이후 베이비골프장은 경성 이외에 평양, 인천, 대구, 전주 등 각 도시에 속속 생겨나 점점 「대중화」되어 골프대회가 열리기도 하였으며⁶⁶⁾ 온천지와 피서지에도 즐길 정도로 「최신 유행」 시설이 되었다.⁶⁷⁾

2)문화의 재구성 및 신평형

재해석된 문화요소가 재구성되어 신평형을 이루면 해체 과정이 중단되고 비로소 정착한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골프구락부는 모두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고급사교구락부」로 정착하였다. 「골프열이 왕성하여 골프팬의 수가 격증」⁶⁸⁾함에 따라 경성골프구락부 회원은 1929년 100명(명예회원 4명)·1931년 213명(명예회원 4명)에서 1939년 499명(명예회원 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⁶⁹⁾ 군자리

63) 「Miniature golf」(https://en.wikipedia.org/wiki/Miniature_golf); 百瀬敏夫, 「昭和六年の流行りもの : ベビーゴルフ」, 『市史通信』 21, 2014년, 4쪽.

64) 百瀬敏夫, 앞의 글, 4쪽.

65) 『매일신보』, 1931년 4월 8일, 2면; 森秀雄編, 『伸びゆく京城電気』, 京城電気(株), 1935년, 11, 130쪽; 善積三郎編, 『京城電気株式會社二十年沿革史』, 京城電気(株), 1929년, 134-135쪽; 『골프의 탄생』, 108쪽.

66) 『釜山日報』, 1931년 9월 4일, 11일, 5면, 9월 28일, 3면, 1932년 3월 13일, 7면; 『동아일보』, 1932년 11월 4일, 3면, 9월 28일, 7면.

67) 『釜山日報』, 1931년 9월 4일, 5면; 徐光霽, 「避暑地報告 釋王寺餘錄(下)」, 『조선일보』, 1936년 9월 5일, 5면.

68) 『조선일보』, 1934년 7월 15일, 석간 22면.

69) 「朝鮮ゴルフクラブメンバーリスト 1929年 12月」, 『ゴルフアー』, 제3권 제1호 부록(「下村宏文書」, 517号,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朝鮮ゴルフクラブメンバーリスト 1931」, 『ゴルフアー』, 제4권 제1호 부록(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이하, 「メンバーリスト 1931」); 京城ゴルフ倶楽部, 「會員名簿」, 1939년(「사업상황

골프장 입장자 수는 1937년 13,581명(하루 평균 37명)에서 1938년에는 16,762명(하루 평균 46명)으로 늘어났다.⁷⁰⁾ 1937년 골프장 내장자 중 회원은 12,562명(92%), 방문자는 1,019명(8%)이었으며 1938년은 회원 15,492명(92%), 방문자 1,270명(8%)이었다. 그리고 1938년 경성골프구락부 주최 골프 경기는 월례회를 포함해 21개가 열려 총 1,579명의 선수가 출전했다⁷¹⁾. 골퍼들은 군자리골프장에서 아래와 같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골프를 즐겼다.

어느 날이나 경성 시외 독섬 저쪽 능리에 있는 끝이 보이지 않게 넓은 경성골프운동장에는 조선 일류명사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일요일마다 전선(全鮮)으로부터 모여든 아마추어골프선수들의 대항전이 벌어진다. 일곱 날에 하루씩 있는 일요일에 자연에 덮인 골프 코스를 하루 종일 달리다 피곤한 몸(에) 신선해진 머리로 귀로에 서는 것이 그들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이라 하겠다.⁷²⁾

그러면 당시 경성골프구락부의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새로운 평형을 이룬 골프구락부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한다.

우선 전체 회원 중 재경(성)회원에 한해 직업을 분석해보기로 한다.⁷³⁾ 소속이 명기된 회원의 근무처는 아래와 같다.

[표 1] 경성구락부 재경(성)회원의 직업 분포

	총독부	회사	은행	학교	이왕직	영사관	언론	병원	계
1931	43	21	25	3	3	3	1	0	98
1939	40	191	46	12	1	1	4	6	301

출처: 「メンバーリスト 1931」; 「會員名簿」.

1931년과 1939년을 비교해보면 우선 총독부가 거의 절반인 44%에서 13%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비해 회사는 21%에서 63%로 거의 세 배 이상 급증했으며, 은행은 26%에서 15%로 줄어들었다. 총독부 고관의 수는 미미하게나마 오히려 감소하고 은행 중역의 수는 2배 정도 증가했지만 회사의 중역이나 대주주 수는 무려 9배 이상 폭증했다. 소속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도 나중에 조선인 회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회사의 중역 또는 대주주나 대지주 등 상층자본가였다. 결국 경성골프구락부 회원은

의 건(경성골프구락부), 한국 국가기록원 소재, 이하, 「會員名簿」). 한편, 「朝鮮ゴルフクラブメンバーリスト 1929年 12月」는 이형식 교수님, 경성골프구락부의 「會員名簿」와 다음 각주의 「第十五回事業報告書」는 조성우 교수님의 도움으로 각각 입수하였다. 이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70) 京城ゴルフ倶楽部, 「第十五回事業報告書」, 1939년(「사업상황의 건(경성골프구락부)」, 한국 국가기록원 소재, 이하, 『事業報告書』), 12-13쪽.

71) 『事業報告書』, 4-5쪽; 조상우·강승애·곽성연, 앞의 논문, 7쪽.

72) 김동환, 앞의 글.

73) 회원은 경성에 거주하는 재경(성)회원과 조선 내 지방과 일본 및 외국에 거주하는 지방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후자의 경우 귀국 중인 외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직업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초기에는 총독부 고관이 다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상층자본가들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보기로 한다. 조선인 회원의 비율은 1931년 24명(11%), 1939년 75명(15%)이다. 조선인 비율이 약간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외국인 비율이 줄어 둔 데 기인하며 실제로 일본인 비율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 경성골프구락부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회원수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계
1931	148(69)	24(11)	41(19)	213
1939	402(81)	75(15)	22(4)	499

출처 : 「メンバーリスト 1931」; 「會員名簿」.

1939년까지 활동한 조선인 회원은 1931년 24명과 1939년 75명인데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총 81명이다. 이 중에서 아무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최응구(崔應龜)를 제외한 나머지 80명의 학력 및 주요 이력은 아래 [표 3]과 같다.

우선 학력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41명(51%)이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유학, 특히 경성골프구락부의 초기 회원인 1931년 회원은 24명 중 무려 15명(63%)이 유학 경험이 있다. 더구나 6명은 골프가 일찍이 정착한 구미 유학파(영국 2명 미국 4명)이다.

다음에 직업, 즉 경제적 기반을 보면 총독부 관료인 김영상과 지주인 배석환을 제외하고 모두 회사의 대표나 중역 또는 대주주로 상층자본가들이었다. 당시 잡지 『삼천리』가 서울 재산가들의 1년 소득을 「내밀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만원을 넘는 조선인 수는 98명 정도이다. 이중 경성골프구락부 회원이 16명(16%)인데 특히 1위 최창학(24만원), 2위 민대식(23만원), 3위 김연수·박흥식(20만원), 8위 민규(奎)식(14만원), 9위 최남(13만원), 10위 송성진(12만원), 11위 조인섭·조병학(11만원) 등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⁷⁴⁾ 일본인과 비교해 볼 때 관료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⁷⁵⁾

마지막으로 총독부가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정치참여기관인 중추원 또는 도(평의)회, 부(협의회)에 진출한 회원이 27명(34%)이다.

외국 유학을 비롯해 근대적 교육을 받고 회사의 대표나 중역으로 부를 축적해 상층자본가층에 진입한 조선인들이 골프구락부를 통해 총독부 고관과의 친교를 유지하면서 중앙 또는 지방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경성구락부 조선인 회원의 신상명세

74) 「機密室, 우리社會의 諸内幕」, 『삼천리』, 제12권 제8호, 1940년 9월, 3-5쪽(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5) 조선인으로서 관계의 등용문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 관리로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은 1936년 당시 50명이었다(「三千里 機密室」, 『삼천리』, 제8권 제11호, 1936년 10월, 204쪽(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회원명	31	39	학력 및 주요 경력
고원훈	0	0	일본 메이지(明治)대학, 보성전문학교장, 조선체육회장, 선만척식(주)·동일은행 감사, 도지사, 중추원참의
김동훈	0	0	관립한성일어학교, 조선식료품(주) 대표이사, 도지사, 중추원참의
김종선	0	0	일본 니혼(日本)대학, 조선식산신탁(주) 부사장
김한규	0	0	관립한성일어학교, 군수, 조선상업은행·조선생명보험(주) 감사, 한일은행(주) 전무이사, 부협회의의원, 도평의회의원, 중추원참의
민규奎식	0	0	영국 케임브리지(Cambridge)대학, 한일은행·동일은행 이사, 조선건직(주) 대표이사, 중앙주조(주) 이사, 중추원참의
민대식	0	0	미국웨슬리언(Wesleyan)대학, 동일은행 대표이사, 도평의회의원
민병수	0		미국유학, 조선건직(주) 이사
박석윤	0	0	일본 도쿄(東京)제국대학,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조선총독부재외연구원, 매일신보사 부사장
박영철	0		일본육군사관학교, 도지사, 조선상업은행장, 조선철도(주) 이사, 중추원참의
박용구	0		관립일어학교, 도참여관, 중추원참의, 성남전등(주) 이사,
박용균	0	0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병원장, 도평의회의원, 세브란스의약품상회(주) 전무이사
백명곤	0		일본 와세대(早稲田)대학, 서울호모공사(주) 이사, 화성사(합명) 대표
유일한	0	0	미국미시간(Michigan)대학, 유한양행(주) 대표이사,
윤치왕	0	0	영국글래스고우(Glasgow)대학,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 세브란스의약품상회(주) 이사, 남포수산(주) 대표이사
윤치창	0	0	미국루이스(Lewis)대학, 천은광업사(합자)·남포수산(주) 이사
윤호병	0	0	일본도쿄고등상업학교, 한일은행과장, 동일은행 이사
이병길	0	0	일본 교토(京都)제국대학, 후작, 한성은행(주) 대주주, 선만공업사(합자) 대표이사, 중추원참의
이항구	0	0	남작, 이왕직예식과장·차관·장관, 한성은행(주) 대주주
임경순	0		한일은행원, 조선생명보험(주) 대주주, 경성자동차(주) 이사
조병상	0		선린상업학교, 조선농업(주) 대표이사, 부협회의의원, 중추원참의
최진	0	0	일본 간사이(關西)대학, 한성재판소 판사, 한일은행(주) 감사
최창학	0	0	진명학교, 삼성금광 대표, 대창산업(주) 대표이사
한상룡	0	0	일본 세이조(成城)학교, 한성은행(주)·조선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부협회의의원, 도(평의)회의의원, 중추원참의,
한익교	0	0	관립일어학교, 한성은행(주)·조선생명보험(주) 이사, 부협회의의원, 중추원참의
김건영		0	일본 메이지대학, 동양상사(주) 대표이사, 부회의의원, 조선양지(주) 감사
김계조		0	동양연료(주) 대표이사, 회문탄광(주) 상무이사
김금환		0	경성유흥(주)·광장(주) 대주주
김동성		0	미국 오하이오(Ohio)주립대학, 조선중앙일보사(주) 대주주이사·편집국장, 배합원(요정) 대표
김명하		0	성진전주(주) 감사, 삼룡(합자) 대주주
김사연		0	일본 게이오(慶應)의숙대학, 한일은행 부지배인, 조선공론사 사장, 동일은행(주) 감사, 부(협의)회의의원, 도회의의원, 중추원참의
김연수		0	일본 교토제국대학, 경성방직(주)·해동은행 대표이사, 삼양사(합자) 대표, 중추원참의
김영상		0	일본 메이지대학, 경성부청 재무부장
김유환		0	금보(합명) 대주주, 유신상회 대표

김의명	0	일본 센슈(專修)대학, 국경상사(주) 대표이사. 의명광업(합자) 대표
김준호	0	한성신탁(주) 대주주
구창조	0	인일상회(주)·조선공영(주) 대표이사
나용균	0	일본 와세다대학, 영국 런던대학, 동광당서점(주) 이사
문승탁	0	양정법과전문, 조선제빙(주) 상무이사, 조선기업(주) 감사, 도회의원
민규圭식	0	일본 게이오대학, 동일은행 지배인
민희식	0	미국 네바다(Nevada)주립대학, 동해농업(주) 이사, 천은광업사(합자) 대표
박기효	0	북청공립농업학교, 공흥(주)·북청전등(주) 이사, 응덕사(합명) 대표
박두병	0	경성고등상업학교, 조선은행원, 박승목상점(주) 이사
박영근	0	일본 메이지대학, 조선총독부 서기·군수, 광산 대표, 조선토목(주) 이사, 부회의원.
박용수	0	국경통운(주)·합성광산(주) 이사, 신연철공소(주) 대표이사
박용운	0	일본 도쿄외국어학교, 신연상회(주)·신흥자동차운수(주) 대표이사, 조선일보사(주) 감사
박흥식	0	진남포상공학교, 선광인쇄(주)·선일지물(주)·화신(주) 대표이사
방규환	0	일본 게이오대학, 동방농사(합자) 대표, 부협회의회의원
방태영	0	사립철도학교, 매일신보 기자, 조선서적인쇄(주)·조선천연빙(주) 이사, 중추원참의
배석환	0	지주
송성진	0	조선상업은행(주) 대주주, 조선물산무역(주) 상무이사, 가평상회(주)·영익사(주) 이사, 도회의원
신용욱	0	일본 도쿄항공전문학교, 미국 힐라헬리콥터학교, 신항공사업사사장
오한영	0	미국 에모리(Emory)대학,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
유억겸	0	일본 도쿄제국대학, 연희전문학교 교수, 변호사, 남포수산(주) 감사
이갑수秀	0	경성의학전문학교, 독일 베를린대학, 일본 교토대학,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교수
이갑수洙	0	일본 오카야마(岡山)의학전문대학, 일본 교토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의 학부 교수
이상옥	0	경성법학전문학교, 대지주, 환이하주운수조(합자) 대표
이성희	0	대구교남중학교, 조선화재보험조선취인소 참사, 영춘농장(합명) 중역
이승우	0	일본 주오대학, 변호사, 동아신탁(주)·경성흥업신탁·동일은행(주) 감사, 부회의원, 중추원참의
이정재	0	경성고등상업학교, 동일은행 지배인, 영보(합명) 상무이사, 부회의원
이중철	0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일본 큐슈(九州)제국대학, 이중철의원 대표
이춘웅	0	충주전기(주) 감사, 기용상점(합자) 대표, 도평의회의의원
윤기익	0	관립외국어학교, 영국런던유학, 갑암광산(주) 이사
윤덕기	0	조선공작(주) 이사, 강원약미(주) 대표이사
윤창현	0	일본호세(法政)대학, 고려광업(주) 대표이사
양재창	0	경성학당, 조선총독부 군수, 조선생명보험(주) 이사, 선만토지광산부로커(주) 대표이사, 부회의원, 중추원참의
장기식	0	경성법학전문, 압록강토지개량(주) 전무이사, 도회의원
장병량	0	선만교통(주)감사
전용순	0	선린상업학교, 금강제약소 사장
정옥현	0	일본 주오대학, 야마이찌(山一)증권회사 경성지점장 대리
정운용	0	일본 메이지대학, 경북합동은행 이사, 소화산업(주) 대표이사
정현모	0	일본 와세다대학, 대동광업(주) 상무이사, 안동주조(주) 이사

조계영		0	원동무역(주) 대표이사
조병학		0	경성장고금융(주) 감사, 영익사(주) 이사, 대지주, 한성정미소
조인섭		0	천일약방 대표, 조선고약(주) 대표이사, 조선토지건물(주) 이사
조준호		0	일본 주오대학, 동아상사(주) 전무이사, 동아증권미두(주) 대표이사
조중환		0	일본 사립대, 거창어채(주) 대표이사, 목도주조(주) 감사, 도회의원
최남		0	경성보성중학교, 덕영상점(합명) 대표, 경성하주조(주) 대표이사
최선익		0	조선중앙일보사(주) 대주주·부사장, 개성상사(주) 대표이사
최응구		0	불명
한상억		0	변호사, 동해농업(주)·동양백화(주) 대표이사, 부회의원
하준석		0	일본 와세다대학, 경남자동차(주) 이사, 조선공작(주) 대표이사, 도회 의원, 중추원참의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6.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기 「고급사교구락부」의 문화접변은 1910년대 정치적 성격의 「내선융화구락부」에서 1930년대 스포츠 성격의 골프구락부로 바뀌었는데 구체적인 접변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평형인 「내선융화구락부」는 일제의 동화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등 조선의 상층자본가들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총독부 고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1910년대에 활동한 정치적 성격의 「고급사교구락부」이다. 「내선융화구락부」는 공개적인 내선융화활동에 대한 반감, 총독부의 해외관광객 유치의 필요성,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관심, 골프 인지·경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부부적인 해체를 시작했다.

다음에 「내선융화구락부」의 부분적인 해체를 막기 위해 외래문화요소로서 골프(구락부)가 1921년 효창원골프장 개장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전파, 제시되었다. 이어 총독부 정무총감 아리요시 등 총독부 고관들의 주도로 1924년 경성골프구락부가 창립되고 청량리골프장으로 이전하면서 일단 수용되었다. 새로 수용된 골프구락부에 대해 업무 소홀에 대한 비난, 땀감을 잃은 주민들의 반발, 유한계급의 유희·오락에 대한 반감, 미비한 골프장 설비에 대한 불만, 정경유착에 대한 불평 등의 저항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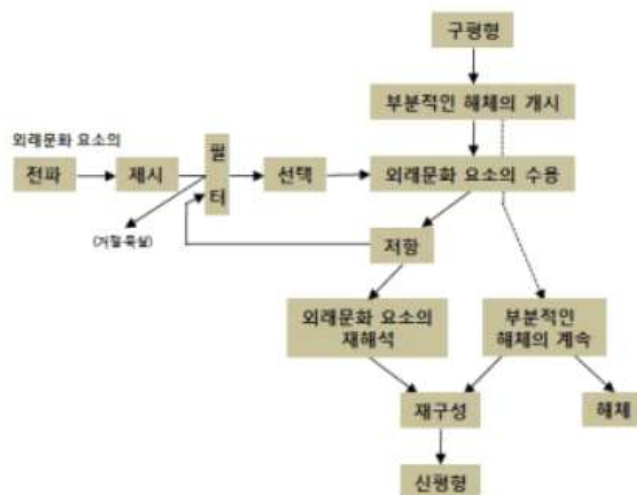
수용자측 주변의 문화요소는 저항을 겪으면서 변화했다. 18홀 정규코스 군자리골프장 개장, 다양한 골프대회 개최, 베이비골프의 유행 등이 그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문화요소와 새로운 문화요소인 골프구락부와 조직적 적합성이 높아져 골프구락부라는 문화요소의 의미가 재해석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골프구락부는 조선의 대표적인 「고급사교구락부」로 자리 잡았다. 주로 일본인 총독부 고관들과 조선의 상층자본가들로 구성된 경성골프구락부 회원은 물론 비회원들도 평일과 주말에 골프를 즐기게 되었다. 골프구락부는 「고급사교구락부」로 재구성되어 신평형을 이루며 정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내선융화구락부」에서 골프구락부로 변화한 식민지에서의 「고급사교구락부」의 문화접변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조선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총독부 일본인 고관들의 주도하에 강제적인 접촉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철도관리국에 의해 골프가 외래문화요소로서 전파·제시되고 골프구락부가 수용, 재해석되는 데 총독부 및 이왕직 고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골프구락부 회원의 대다수는 일본인 상층자본가였다.

이 때문에 식민지기 골프구락부는 다수가 즐기는 개방적인 스포츠 형식의 구락부가 아닌 소수의 특수 계층이 향유하는 폐쇄적인 「고급사교구락부」로 인식되어, 아시아·태평양전쟁이 격화되자 단지 「사치」와 「오락」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스포츠」로서의 평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경성골프구락부는 1940년 전시체제에 협력할 「골프의 신체제」를 협의해 골프장 이용 제한, 골프 물품 절약, 은제컵 헌납 등의 「자숙」안을 발표했다.⁷⁶⁾ 하지만 경성골프구락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종전 직전인 1944년 3월 임시총회를 열고 구락부 해산을 결정했다. 군자리골프장은 전쟁 준비를 위한 항공훈련도장으로 바뀌었다.⁷⁷⁾

1945년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이후 독립 국가가 수립되면 많은 한국인의 자발적인 필요와 노력에 의해 다시 새로운 골프(구락부)의 문화접변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식민지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기본 방향은 폐쇄적인 소수의 유희나 오락의 「고급사교」에서 개방적인 다수의 취미나 스포츠로서의 골프로 향하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삼는다,



〈그림 1〉 문화접변의 과정

출처 : 平野健一郎, 『國際文化論』, 장인성·김동명 역, 『국제문화론』, 풀빛, 2004, 89쪽.

76) 『매일신보』, 1940년 8월 27일, 2면.

77) 『매일신보』, 1944년 3월 22일, 3면.

참고문헌

1. 자료

- 『京城日報』, 『동아일보』, 『매일신보』, 『釜山日報』, 『삼천리』, 『조선시보』, 『朝鮮新聞』, 『조선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경성부, 『경성부사, 제3권』, 선광인쇄주식회사, 1941년.
박수원, 『노기남 대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년.
사단법인 대한골프협회, 『한국골프 100년 1900~2000』, 비매품, 2001년.
최영정, 『코스에 자취를 남긴 사람들』, 국민체육진흥공단, 2000년, 비매품.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XXXVIII(1936), pp. 149-152.
「Miniature golf」(https://en.wikipedia.org/wiki/Miniature_golf).
大島勝太郎, 『朝鮮野球史』, 朝鮮野球史發行所, 1932년.
大塚常三郎, 「ゴルフを通じて観た人生」, 『鮮満體育界』, 제1권 제2호, 1922년 12월호.
「京城ゴルフ研究会生る」, 『鮮満體育界』, 제2권 제1호, 1923년 2월호.
李王職編, 『(李王同妃兩殿下)御渡歐日誌』, 李王職, 1928년.
篠田治策, 『歐洲御巡遊隨行日記』, 大阪屋號書店, 1928년.
「朝鮮ゴルフクラブメンバーリスト 1929年 12月」, 『ゴルフアー』, 제3권 제1호 부록(「下村宏文書」, 517号,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朝鮮ゴルフクラブメンバーリスト 1931」, 『ゴルフアー』, 제4권 제1호 부록(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京城ゴルフ俱樂部, 「會員名簿」, 1939년(「사업상황의 건(경성골프구락부)」, 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京城ゴルフ俱樂部, 「第十五回事業報告書」, 1939년(「사업상황의 건(경성골프구락부)」, 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全國 歴史の古い名門ゴルフ場ランキング」(<https://www.100yardage.com>).
「競技発祥から日本人 チャンピオンが誕生するまで」, 日本ゴルフ協會, 『Golf Journal』 vol. 67, 2001년(http://www.jga.or.jp/jga/html/about_jga/vol67/index.html).
日本プロゴルフ協會(監修), 『現代ゴルフ全集 1』, 東京, 中央公論社, 1959년.
百瀬敏夫, 「昭和六年の流行りもの : ベビーゴルフ」, 『市史通信』 21, 2014년.
森秀雄編, 『伸びゆく京城電気』, 京城電気(株), 1935년.
善積三郎編, 『京城電気株式會社二十年沿革史』, 京城電気(株), 1929년.

2. 저서

- 손환, 『한국 골프의 탄생』, 민속원, 2021년.
최길성 편, 『일제시대 한 어촌의 문화변용』, 상, 아세아문화사, 1992년.
平野健一郎, 『国際文化論』(장인성·김동명 역, 『국제문화론』, 풀빛, 2004년).

3. 논문

- 김경남, 「일제강점 초기 자본가 중역겸임제에 의한 정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한일관계사연구』 제48집, 한일관계사학회, 2014년.
김동명, 「식민지기 테니스의 문화접면 -경식정국에서 연식정구로-」, 『한일관계사연구』, 제74집, 한

- 일관계사학회, 2021년.
- 김해경, 「효창공원의 장소성 형성과 변화 해석」, 『서울학연구』, 제39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년.
- 김현경·곽형기, 「일제강점기 골프에 대한 신문기사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4권 제3호, 한국체육사학회, 2009년.
- 강혜경, 「효창공원의 역사적 중층성과 상징성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5 No.1,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년.
- 심재욱, 「1910년대 朝鮮貴族의 實態 -『每日申報』 기사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Vol., No.76, 한국사학회, 2004년.
- 유운철·진운수, 「프로골퍼 연덕춘의 생애와 체육활동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17권 1호, 한국체육사학회, 2012년.
- 이가람·최흥희, 「그들만의 리그, 한국 골프 도입의 역사적 배경」, 『골프연구』, 제16권 제3호, 2022년.
- 이규수, 「제조일본인 연구와 식민지수탈론」 『일본역사연구』, 제33집, 일본사학회, 2011년.
- 이병원, 「식민지 시기의 음악적 문화변용: 총체적, 비판적 시각으로 본 견해」, 『동양음악』, Vol. 27,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5년.
- 이순우, 「효창원(孝昌園), 아주 오래 지속된 공간수난사의 이력」, 『내일을 여는 역사』, 74호, 내일을 여는역사재단, 2019년.
- 이형식, 「중간내각 시대(1922.6-1924.7)의 조선총독부」, 『동양사학연구』 제113집, 동양사학회, 2010년.
- 장신,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 『대동문화연구』 제6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년.
- 조상우, 「영친왕의 골프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ol.37, No.4,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2020년.
- , 「일제강점기 골프구락부의 성립과 조선골프연맹의 창립 및 활동」, 『골프연구』, 제9권 제3호, 한국골프학회, 2015년.
- 조상우·강승애·곽성연, 「원산의 골프 도입과 발달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6권 제4호, 한국여성체육학회, 2012년.
- 조상우·신용호·곽성연, 「일제강점기 경성골프사」,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5호, 한국체육학회, 2013년.
- 조상우·정동구, 「한국 골프코스 도입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1권 제5호, 한국체육학회, 2012년.
- 조성운,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의 탄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년.
- 한규무, 「1910년대 계몽운동계열 비밀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통권 8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년.
- 홍선표, 「일제하 미국 유학연구」, 『국사기관논총』, 96, 국사편찬위원회, 2001년.

【토론문】

<11.11 한일관계사학회 토론문>

김동명 「내선융화구락부」에서 골프구락부로
- 식민지기 고급사교구락부의 문화접변 -

현명철

◎ 식민지기 고급사교구락부가 정치적 성격의 「내선융화구락부」에서 스포츠 성격의 ‘골프구락부’로 변해가는 과정을 히라노 겐이치로의 「문화접변 과정」을 채용하여 분석한 재미있는 발표.

◎ 논지는

- 1) 구평형(내선융화구락부)이 3.1운동을 전후해 ①공개적인 내선융화활동에 대한 반감, ②총독부의 해외 관광객 유치 필요성, ③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관심, ④골프 인지 경험자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 2) 「내선융화구락부」의 부분적인 해체를 막기 위해 외래문화요소로서 골프가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전파되어 1921년 효창원 골프장이 건립되었고 뒤이어 경성골프구락부가 창립되었으며, 청량리 골프장이 건설되었다.
- 3) 골프구락부는 여러 저항을 거쳐 정착의 길로 들어서, 독점의 군자리 골프장이 개장되고 다양한 골프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베이비골프를 유행시켰다.
- 4) 골프구락부는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고급사교구락부」가 되어 신평형을 이루며 정착하였다.

◎ 질의

1. 논지의 전개가 헤겔의 변증법적 발전을 상기시킵니다. 테제(구평형)→안티테제(내부적 동요, 외부적 요소 도입)→신테제(신평형). 이렇게 이해해도 좋은가요?
2. 내선융화구락부가 골프구락부로 발전한 것인가요?
대정구락부, 대정친목회 / 조선실업구락부, 계명구락부, 경성골프구락부
대정친목회는 1940년까지 그 이름이 보입니다만... 또 조선실업구락부도 1922년에 발간인 총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3. <기타>

- 2)의 「내선융화구락부」의 부분적인 해체를 막기 위해 골프가 들어와 전파 제시된 것은 효창원 골프장을 통해서이다(8쪽)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골프가 들어와 효창원 골프장이 성립된 것은 「내선융화구락부」의 부분적인 해체를 막는 역할을 하였다’로 결과적인 해석으로 기술해야 하는 걸까요?

- 7쪽 외래어 표기

효교켄 →효고현, 나가사키켄→나가사키현, 도쿄후→도쿄부, 사이다마켄→사이다마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총괄

식민지기 고급 사교구락부가 처음 내선융화구락부였는데 나중에 골프구락부가 되는 과정은 설득력 있고 재미있다. 그러나 이를 문화접변과 연관 지을 수 있는지는 저항이 예상됩니다.

제3발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의 쟁점

발표 : 황선익(국민대)

토론 : 김상규(군사편찬연구소)

【제3주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의 쟁점

황선익(국민대)

별지

【토론문】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의 쟁점에 대한 토론문

김상규(군사편찬연구소)

별지

【한일관계사학회 보고사항】

1. 2023년 학회 월례발표회 및 학술회의

- 제205회 월례발표회 : 2023년 3월 11일(토)
- 제206회 월례발표회 : 2023년 4월 8일(토)
- 제207회 월례발표회 : 2023년 5월 13일(토)
- 제208회 월례발표회 : 2023년 6월 10일(토)
- 한일관계사학회-부경역사연구소 공동개최 학술회의 : 2023년 8월 5일(토)
- 한일관계사학회 학술회의 : 2023년 9월 9일(토)
- 한일관계사학회-전북대 이재연구소 공동개최 학술회의 : 2023년 10월 14일(토)
- 제209회 월례발표회 : 2023년 11월 11일(토)

2. 《한일관계사연구》 81집 발간

- 《한일관계사연구》 81집이 2023년 8월 3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2집의 투고가 2023년 9월 30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3집은 2023년 2월 28일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때 심사비 6만원(심사자 3인)을 입금해 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논문게재비는 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입니다.

3.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신회비]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연회비] •일반회원 : 3만원 •기관회원 : 4만원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217002-04-676500 <예금주> 조인희